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 | | |
|-----|-----------------------------------------|----|
| 1. | 국가개요 | 1 |
| 2. |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상반기 경제동향 개요 | 2 |
| 3. |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하반기 경제동향 | 4 |
| 4. |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상반기 경제동향 | 6 |
| 5. |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하반기 | 9 |
| 6. | 한국과의 무역관계/한-코스타리카 수출입 현황 | 11 |
| 7. | 한국과의투자관계/코스타리카에진출한현지법인 현황(한국수출입은행 제공)13 | |
| 8. | 수입규제사례/수출국 세관확인서 제출 요구 | 16 |
| 9. | 주요이슈/미국과 중미5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 17 |
| 10. |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19 |
| 11. | 환전 | 20 |
| 12. | 기후 | 21 |
| 13. | 공휴일 | 21 |
| 14. | 시차/근무시간 | 22 |
| 15. | 호텔/주요 호텔리스트 | 22 |
| 16. | 식당 | 29 |
| 17. | 교통/통신/교통, 통신 | 29 |

| | | |
|-----|-----------------------------|----|
| 18. | 유용한 연락처 | 31 |
| 19. | 여행시 유의사항 | 32 |
| 20. | 관광명소 | 34 |
| 21. | 유용한 현지어 표현 | 37 |
| 22. | 국토 | 39 |
| 23. | 국민 | 41 |
| 24. | 역사 | 42 |
| 25. | 국가조직 | 43 |
| 26. | 정치제도 | 45 |
| 27. | 정치사회동향 | 45 |
| 28. | 국가원수/Abel Pacheco 대통령 | 47 |
| 29. | 주요인사 | 48 |
| 30. | 행정구역 | 49 |
| 31. | 대외관계 | 51 |
| 32. | 도량형 | 53 |
| 33. | 관공서 관행 | 54 |
| 34. | 주한 주재국기관 | 55 |
| 35. | 물가정보 | 56 |
| 36. | 경제정책 | 56 |

| | | |
|-----|---------------------------|----|
| 37. | 지적 재산권 | 58 |
| 38. | 소비자 보호 | 59 |
| 39. | 수입 관리 제도 | 59 |
| 40. | 관세 제도 | 60 |
| 41. | 통관 절차 | 60 |
| 42. | 시장 특성 | 61 |
| 43. | 상거래시 유의 사항 | 62 |
| 44. | 전반적 투자여건 | 62 |
| 45. | 투자유치정책 | 63 |
| 46. | 외국인 투자제한 | 64 |
| 47. | 투자진출절차 | 65 |
| 48. |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 66 |
| 49. | 산업단지 | 67 |
| 50. | 자유무역지대/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 | 67 |
| 51. | 조세제도 | 69 |
| 52. | 사회간접자본 | 70 |
| 53. | 노동여건/코스타리카 노동여건 | 72 |
| 54. | 사회보장제도 | 73 |
| 55. | 현지 생활여건 | 74 |

| | | |
|-----|---------------------------------|----|
| 56. | 이주 정착가이드 | 75 |
| 57. | 자녀 교육여건 | 76 |
| 58. | 진출기업/코스타리카 진출기업 | 77 |
| 59. | 주요 경제지표 | 78 |
| 60. | 대외거래지표/코스타리카 대외거래 지표 | 78 |
| 61. |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코스타리카 주요국별수출입현황 | 79 |
| 62. |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코스타리카품목별수출입현황 | 80 |
| 63. |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코스타리카 수출입현황 | 81 |
| 64. |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 82 |
| 65. |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현황 | 83 |
| 66. | 물가금융지표/코스타리카 물가금융 통계 | 83 |
| 67. | 노동통계/코스타리카 노동관련 통계 | 84 |
| 68. |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 84 |

1. 국가개요

일반사항

| | |
|------------|---------------------------------------------------------------------------------------------------------------------------------------------------------------------------------|
| 국명 | 코스타리카 (La Republica de Costa Rica) |
| 위치 | 중미, 파나마 위에 위치 |
| 면적 | 51,100 km ² (한반도의 약 1/4) |
| 기후 | 코스타리카는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어 연교차는 크지 않으나 고도에 따라 기후가 열대와 온대로 나뉘어져 있음 수도 산호세는 해발 1,172m에 위치, 연중 21~29° C의 온화한 기후를 보임 아울러 12월~4월은 건기, 5월~11월 우기로 나뉘어져 강우량이 월별로 5~300mm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도량형 | 미터제 |
| 수도 | 산호세 (San Jose) |
| 인구 | 4,248천명 (2004 중앙은행 통계) |
| 주요도시 | San José (수도, 330천명), Alajuela (246천명), Cartago (139천명) Puntarenas (112천명), Heredia (110천명), Limón (95천명) |
| 민족(인종) | 스페인계 백인 95%, 흑인 2%, 메스티조 및 기타 3% |
| 언어 | 스페인어 |
| 종교 | 카톨릭 (90% 이상) |
| 건국(독립)일 | 1821. 9. 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 국가원수 (실권자) | Abel Pacheco (2002년 집권) |
| 입법부 | 단원제 (임기4년, 57석) |
| 정당 | 여당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야당 - 국민해방당(PLN) 등 정부성향 : 대미우호, 평화선린 |

경제지표 (2004년 기준)

| | |
|---------|---------------------|
| GDP | US\$ 175억(2004년 추정) |
| 실질경제성장률 | 4.0% |
| 1인당 GDP | US\$ 4,125 |

| | |
|-------|-------------------------------------------------------------------------------------------------------------------------------------------------------------|
| 실업률 | 6.7% |
| 물가상승률 | 13.1% |
| 화폐단위 | 콜론 (colon) |
| 환율 | 1 US\$ = 464.79 콜론 (2005.3.3 현금매입률 기준) |
| 외채 | US\$ 37억 |
| 외환보유고 | US\$ 19억 |
| 교역규모 | US\$ 145억 (수출 : US\$63억, 수입 : US\$82억) |
| 교역품목 | 수출 : 반도체, 섬유제품, 커피, 바나나 등 전통상품 수입 : 원자재 및 석유(53.3%), 소비재(20.6%) 자본재(19.2%) 교역 대상 지역 수출 : 미국, 유럽, 중미,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수입 : 미국, 유럽, 멕시코, 일본, 베네수엘라 |

한-코스타리카 관계

| | |
|---------------------|---------------------------------------------------------------------------------------|
| 체결협정 | 문화협정('71), 무역협정('75),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81), 투자보장협정('02) |
| 교역규모(2002년) | US\$146백만 (한국수출 US\$80백만, 한국수입 US\$66백만) |
| 주요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섬유기계류 타이어, 강판, 직물, 축전지 등 우리나라 수입 : 컴퓨터부품, 반도체, 커피 등 |
| 투자교류 (2002년 12월) | 13건 2천만불(우리나라 진출), 전무(국내 유치) |
| 교민(2003년) | 교민 350여명, 체류자 70여명 |

2.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상반기 경제동향 개요

1. 경제성장

- 2002년 경제성장률은 2.8%에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국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 경기에 따라 코스타리카 수출도 좌우될 전망이다.
- 전통상품인 커피, 바나나의 경우 계속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
- 2003년 초에는 이라크戰으로 관광경기가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이를 탈피해 경기가 다소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함.
- 공공분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으로 국내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
- 본격적인 경제성장세 회복은 2004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인플레이션

- 코스타리카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진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많이 받으며 국제 유가 움직임도 인플레이션 추이에 많은 영향을 줌.
- 특히 불확실한 중동 및 베네주엘라의 상황이 가장 큰 변수임.
- 중앙은행은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높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다시 유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3. 대외 부문

-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둔화된다면 경상수지 조정이 가능함.
- 코스타리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국제가격이 상승할 경우 코스타리카의 전체 수출도 확대될 수 있으나 금년 전망은 불투명함.
-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도 기대됨.
- 2003년 하반기 이후 2004년 진입하면서 상품 수출 및 관광 유치가 본격 회복되고 원유 수입 지출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 2002년 수출액은 2001년 대비 4.7%, 수입액은 9.4%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19억불에 달함.

4.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 2001 | 2002 | 2003(예상) | 2004(예상) |
|-----------------|-------|-------|----------|----------|
| 경제성장률(%) | 1.1 | 2.8 | 2.1 | 3.2 |
| 산업생산 증가률(%) | -3.7 | 2.0 | 1.9 | 3.0 |
| 농업생산 증가율(%) | 0.8 | -1.0 | 1.5 | 2.0 |
| 실업률(%) | 6.1 | 6.3 | 6.3 | 6.0 |
| 연평균소비자물가지수(%) | 11.2 | 9.2 | 9.6 | 9.1 |
| 소비자물가지수총비율(%) | 11.0 | 9.7 | 9.6 | 8.4 |
| 수출액(십억불) | 4.9 | 5.3 | 5.6 | 5.9 |
| 수입액(십억불) | 6.1 | 6.8 | 7.0 | 7.3 |
| 경상수지 적자(십억불) | 0.7 | 0.7 | 0.6 | 0.6 |
| GDP대비경상수지 적자(%) | 4.3 | 4.6 | 3.6 | 3.4 |
| 외채액(십억불) | 4.6 | 4.8 | 5.0 | 5.2 |
| 對미화 환율(콜론) | 328.9 | 359.8 | 398.1 | 439.6 |

(정보원 : EIU)

3.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하반기 경제동향

경제동향(2003년 하반기)

1. GDP 동향

- 2003년 하반기 코스타리카 경제는 역동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 연간 GDP 성장률은 5.6%를 기록하였다.
- ※ 코스타리카에는 Intel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공장이 존재하며, Intel 공장의 수출액이 전체수출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국가 경제지표를 왜곡할 우려가 있자, 정부에서는 동 부문을 첨단전자산업(IEAT)로 명명하고 주요 경제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즉, 2003년 경제성장률은 IEAT를 포함할 경우 5.6%이고 포함하지 않을 경우 4.4%로 집계된다.
- 2003년 하반기 경제활동은 경제 전반에서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특히 제조업, 운송, 통신, 창고, 농수산, 서비스, 금융부문에서 호조를 나타냈다.
- 제조업은 전년비 8.9%의 높은 성장세가 기록됨.
 - IEAT 부문이 33.1%의 높은 성장세 기록
 - IEAT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은 3.5%의 성장세를 기록
 - 내수증가 보다는 해외수요의 증가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의약품, 세제류, 청소용품, 플라스틱 제품, 동식물성 식용유 등에 대한 수출증가가 돋보임.
 - 수출용 보세 가공산업은 전년비 9.6% 감소 기록
- 농수산부문은 최근 5년간 가장높은 6.6% 성장 기록
 - 바나나, 파인애플, 멜론, 화훼류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증가
 - 커피는 생산량 전년비 6% 증가, 멜론은 16.6%, 그리고 파인애플은 무려 20%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운송, 창고, 통신부문의 경우도 전년비 11%의 높은 성장세 기록
 - 휴대폰 통화량이 전년비 63% 증가를 기록하였고 휴대폰 사용자 수도 59% 증가를 기록하는 등 통신부문 증가가 두드러짐

2. 물가동향

- 2003년 하반기중 소비자 물가지수 누적치는 5.3%를 기록
 - 전년동기의 5.6% 보다 0.3% 포인트 낮은 수치 기록
 - 전력, 가솔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과 쌀, 양파, 토마토 등 농산물 분야가 물가상승 주도
 - 공공요금과 농산물분야를 제외할 경우 누적 인플레이션은 3.8%로 전년동기 4.9% 대비 1% 포인트 이상 낮아지게 됨.
 - 2003년중 누적 인플레이션은 9.9%를 기록, 정부의 연간 목표치 10%를 달성하였음.

3. 환율동향

- Mini Devaluation 정책 지속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자국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매일 몇센트씩 변동시켜나가는 Mini Devalu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해외 인플레이션과 자국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매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임.
- 2003년 하반기중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5% 평가절하됨.
 - 일일 평균 환율변동폭은 16센트 콜론으로 집계됨.
 - 2003년 연간 기준으로 평가절하율은 10.5%로 집계됨
- ※ Mini Devaluation 제도는 실질환율 반영기능에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환율에 대한 투기심리 해소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소비재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예측된 평가절하율만큼 인플레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발생, 정부의 인플레이 억제노력에는 역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4. 대외동향

-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 2% 신장
 - 코스타리카의 주요 교역상대국 19개국 경제성장률은 2002년 1.7%에서 2003년 2%로 높아져, 코스타리카 경제의 대외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이들 주요 교역국 경제는 2004년에도 3.1%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미국경제 불안요인 상존
 - 코스타리카 대외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경제가 과중한 외채, 낮은 설비 가동율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여기에 중동지역 정치불안 및 석유가격 불안 등도 대외여건의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중남미경제 회복 가시화
 - 2002년의 중남미 경기침체는 2003년 하반기 회복세로 반전됨
 - 2003년 중남미경제는 1.5%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이 7.4% 증가하고 인플레이가 3.6% 포인트 낮아짐.
 - 그러나 2003년 1인당 GDP는 아직 1997년 수준 보다 1.5%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다.
 - 한편 중미지역 경제는 2.4% 신장을 기록하였음.
-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및 무역적자 감소
 - 2003년 코스타리카 수출은 전년비 15.9% 증가한 6,102백만불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전년비 6.6% 증가한 7,662백만불을 기록하였음.
 - 무역적자는 1,560백만불로써 전년의 1,924백만불에서 364백만불 개선되었음.
- Free Zone 수출증가가 전체 수출증가 견인
 - 커피, 바나나 등 수출작물 가격상승에 따라 전통상품의 수출이 전년비 12% 증가하고 공산품 등 비전통 상품의 수출도 10.2% 증가하였음.

| 지표명 | 단위 | 2000 | 2001 | 2002 | 2003 | 가하여 전체 |
|---------|--------|--------|---------|---------|---------|-----------|
| GDP | US\$백만 | 15,957 | 16,382 | 16,837 | n/a | |
| GDP 성장률 | % | 1.8 | 1.0 | 2.9 | 5.6 | |
| 1인당 GDP | US\$ | 3,718 | 3,866 | 4,193 | n/a | |
| 인구 | 천명 | 3,810 | 3,906 | 3,997 | 4,088 | 20.0% 증가 |
| 인플레이션 | % | 10.3 | 11.0 | 9.7 | 9.7 | |
| 실업률 | % | 5.2 | 6.1 | 6.4 | 6.7 | |
| 수출 | US\$백만 | 5,849 | 5,021 | 5,263 | 6,102 | 수입 증가의 원인 |
| 수입 | US\$백만 | 6,388 | 6,568 | 7,187 | 7,662 | |
| 무역수지 | US\$백만 | (539) | (1,547) | (1,924) | (1,560) | 1.3% 감소를 |
| 외채 | US\$백만 | 4,208 | 4,448 | 5,337 | 5,337 | 있음. |
| 외환보유고 | US\$백만 | 1,317 | 1,379 | 1,496 | 1,836 | |
| 수신이자율 | % | 11.6 | 12.5 | 10.7 | 10.5 | |
| 환율 | Colon | 341.4 | 378.4 | 418.0 | 434.3 | |

*주) 환율과 이자율은 연도말 기준이며, 2004년은 5월말 기준임

4.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상반기 경제동향

코스타리카 경제동향(2004년 상반기)

1. GDP 동향

- 코스타리카 경제는 2003년중 역동적인 5.6% 성장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04년 상반기 국제유가 인상 및 Free Zone 수출감소 등으로 그 신장률이 다소 낮아져, 전년동기비 3.8%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 코스타리카에는 Intel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공장이 존재하며, Intel 공장의 수출액이 전체수출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국가 경제지표를 왜곡할 우려가 있자, 정부에서는 동 부문을 첨단전자산업(IEAT)로 명명하고 주요 경제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즉, 2004년 상반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IEAT를 포함할 경우 3.8%이고 포함하지 않을 경우 4.1% 이다.
- 2004년 상반기 경제활동은 경제전반에서 신장세가 나타났으나, 특히 휴대폰과 인터넷 서비스 수요확대에 따른 통신부문이 전년동기비 12.9% 신장세를 기록하였고, 관광산업 호조에 따라 호텔업이 16.2% 신장세를 기록하는 등 통신과 관광 관련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제조업은 전년동기비 1.8%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전년도 33.1% 성장세 기록했던 IEAT 부문은 국제시장 여건 악화로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성장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IEAT를 포함한 Free Zone 수출은 전년동기비 -7.3% 감소를 기록함
 - IEAT를 제외한 일반 수출부문은 전년수준 유지함.
- 농수산부문은 안정적 성장기록
 - 2003년 농수산부문은 과거 5년간 가장높은 6.6% 성장 기록한 바 있음.

- 2004년 들어 바나나, 설탕 등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커피생산은 기후적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2.6% 증가에 그침.

- 기타전력, 용수, 건축, 요식업, 서비스업등은 평균수준인3.6%의 안정적성장을 기록

2. 물가동향

- 2004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6.3% 기록
 - 전년동기의 4.3% 대비 2% 포인트 상향된 수치이며, 2004년 6월말 기준 연률 인플레이(최근 12개월 인플레이 누적 수치)도 11%로 정부 억제목표 10%를 넘어섬.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이에따른 전력, 교통등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큰 물가압력 요인으로 작용
 - 이외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플라스틱 파이프 가격이 34% 인상되는 등 철강, 플라스틱 등 수입원자재 가격인상도 상반기 물가불안의 주 요인이었음.

3. 환율동향

- Mini Devaluation 정책 지속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자국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매일 몇센트씩 변동시켜나가는 Mini Devalu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해외 인플레이율과 자국 인플레이율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매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임.

- 2004년 상반기중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4.5% 평가절하됨.
 - 일일 평균 환율변동폭은 15센트 콜론으로 집계됨.
 - 2003년 연간 평가절하율은 10.5%였음.

※ Mini Devaluation 제도는 실질환율 반영기능에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환율에 대한 투기심리 해소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소비재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예측된 평가절하율만큼 인플레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발생, 정부의 인플레이 억제노력에는 역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4. 대외동향

- 대외여건 호전 기대
 - 코스타리카의 주요 교역상대국 19개국 경제성장률은 2001-2003 기간중 1.5% 에 그쳤으나 2004-2005 기간중 3.7%, 3.3% 신장이 기대됨.
 - 아울러 국제유가 인상, 지역적 국제정치 불안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국제경제 호전이 기대됨.
- 미국경제 활력 회복
 - 코스타리카 대외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경제가 2004년 상반기중 4.2% 성장률을 기록
 - 여기에 이자율 인하, 소비확대 등이 산업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중남미경제 회복 가시화
 - 2002년까지 중남미 경기침체가 2003년 하반기 회복세로 반전됨
 - 중남미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2004년 상반기중 각 10.7%, 6%

-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멕시코도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2004년 중남미 경제는 3.9%, 그리고 2005년에 3.7%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음.

- 수출지체 및 수입증가로 무역적자 확대
 - 2003년 코스타리카 수출은 전년비 15.9% 증가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1% 증가한 3,219백만불에 그침.
 - 한편 수입의 경우 2003년 전년비 6.6% 증가를 기록한 이후 2004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비 6.9% 증가한 4,110백만불을 기록함.
 -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2003년 상반기 654백만불에서 2004년 상반기 891백만불로 확대되었음.
- Free Zone 수출감소로 전체 수출은 전년수준에서 정체
 - 커피 수출가격 상승 및 바나나, 설탕 등 작황호조로 전통상품 수출이 전년동기비 10.7% 증가하였으며, 식음료기공 등 비 전통상품 수출도 전년동기비 10.6% 증가함
 - 그러나 Intel등 Free Zone 입주기업의 수출이 전년 25.6% 증가에서 2004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비 -7.3%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증가율은 1.0%를 기록함.
- 석유제품, Free Zone 자본재, 농산물 등이 수입확대 주도
 - 2003년 이후 국제 고유가 현상으로 석유류 수입이 2004년 상반기중 327백만불로 전년동기비 15.3% 수입액이 증가하였음.
 - 한편 밀, 쌀, 콩 등 수입 농산물 가격인상으로 수입액이 전년동기비 56.9% 증가하였고, Free Zone에 소요되는 기계장비류 수입이 전년동기비 42.8% 증가하였음.

5. 주요 경제지표

| 지표명 | 단위 | 2000 | 2001 | 2002 | 2003 |
|---------|--------|--------|---------|---------|---------|
| GDP | US\$백만 | 15,957 | 16,382 | 16,837 | n/a |
| GDP 성장률 | % | 1.8 | 1.0 | 2.9 | 5.6 |
| 1인당 GDP | US\$ | 3,718 | 3,866 | 4,193 | n/a |
| 인구 | 천명 | 3,810 | 3,906 | 3,997 | 4,088 |
| 인플레이 | % | 10.3 | 11.0 | 9.7 | 9.7 |
| 실업률 | % | 5.2 | 6.1 | 6.4 | 6.7 |
| 수출 | US\$백만 | 5,849 | 5,021 | 5,263 | 6,102 |
| 수입 | US\$백만 | 6,388 | 6,568 | 7,187 | 7,662 |
| 무역수지 | US\$백만 | (539) | (1,547) | (1,924) | (1,560) |
| 외채 | US\$백만 | 4,208 | 4,443 | 3,337 | 3,753 |
| 외환보유고 | US\$백만 | 1,317 | 1,379 | 1,496 | 1,836 |
| 수신이자율 | % | 15.5 | 16.0 | 17.5 | 13.8 |
| 환율 | Colon | 317.7 | 341.4 | 378.4 | 418.0 |

5.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하반기

코스타리카 경제동향(2004년 하반기)

1. GDP 동향

- 코스타리카 경제는 2003년 역동적인 6.5%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석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Free Zone 수출감소 등 부정적 요인의 영향으로 그 신장률이 다소 낮아져, 전년비 4.0%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 코스타리카에는 Intel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공장이 존재하며, Intel 공장의 수출액이 전체수출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국가 경제지표를 왜곡할 우려가 있자, 정부에서는 동 부문을 첨단전자산업(IEAT)로 명명하고 주요 경제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즉, 2004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IEAT를 포함할 경우 4.0% 이고 포함하지 않을 경우 4.3% 이다.
- 제조업 부문 1% 성장을 기록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해상운임의 동반상승은 제조부문의 비용상승, 수요 부족 등 내외외환을 야기함.
 - 이에 따라 2004년 내수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그나마 Free Zone 입주 기업의 수출이 전년비 4.8%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음.
 - 반기별 추세를 보면 상반기 0.3% 성장에서 하반기 1.5% 성장으로 성장률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
- 주종 수출상품인 농수산물 부문 성장률도 전년의 7.1%에서 0.6%로 급락
 - 2003년 커피작황 호조 및 조기 수확 등으로 동 부문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생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수치로 나타남.
 - 바나나의 경우 2004년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전년수준에서 정체됨.
- 관광산업 호조가 경제전반에 활력 부여
 - 주 관광지에 소재한 Liberia 공항 확장으로 등 관광인프라 병목현상 해소
 - 9.11 이후 미국인들의 장거리여행 기피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 유러화 강세에 따른 코스타리카 관광상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 제고
 - 2004년 코스타리카 관광산업은 관광객수 기준 전년비 16% 증가한 148만명 유치, 관광수입 기준으로 전년비 20% 증가한 14억 5천만불 수익기록
 - 관광산업 호조는 교통, 통신, 창고, 숙박 등 다수 연관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옴.

2. 물가동향

- 2004년 물가상승률 정부목표치 넘어선 13.1% 기록
 - 연초 코스타리카 정부는 인플레이 억제목표를 9%로 설정하였고 하반기 들어 이를 11%로 수정하였으나 연말기준 인플레이는 정부목표를 크게 넘어선 13.1% 기록
 - 2004년 물가불안의 근원지는 국제고유가 현상으로, 수입석유의 가격인상은

공공요금, 교통, 운송, 수입 농수산물 가격에 차례로 영향을 끼쳐, 2004년중 수도요금 30.5%, 휘발유가격 35.8%, 전기요금 16.9%, 버스요금 10.3%의 가격인상을 야기함.

- 정부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기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 은행지급 기준율 상향 등 가용정책을 동원하였으나, 외부에 진원지를 둔 인플레이 압력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하는데 그침.

3. 환율동향

- Mini Devaluation 정책 지속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자국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매일 몇센트씩 변동시켜나가는 Mini Devalu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해외 인플레이율과 자국 인플레이율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매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임.
- 2004년 중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9.6% 평가절하됨.
 - 상반기중 일일 평균 환율변동폭은 15센트 콜론이었으나 하반기 국내외 물가불안을 반영 이를 17센트 콜론으로 상향조정함.
 - 2003년 연간 평가절하율은 10.5%였음.
- ※ Mini Devaluation 제도는 실질환율 반영여부에 다소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환율에 대한 투기심리 해소에는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예측된 평가절하율만큼 인플레이가 발생하리라는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발생, 정부의 인플레이 억제노력을 방해하는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4. 대외동향

- 대외여건 호조 지속
 -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약진으로 2004년 세계경제는 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미국경제는 금융,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2004년중 4.3%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실업률도 5.4%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경제확장은 경상수지 적자(GDP의 5.6%), 재정수지 적자(GDP의 3.6%) 확대를 야기,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유로화경제권은 2004년중 1.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성장속도가 낮아지고 있음.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대국의 경제확장에 힘입어 2004년 아시아지역 경제는 전년비 6.6%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중국은 경제과열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10년간 평균성장률 1.7%와 대조되는 4.3% 성장률을 기록함.
 - 한편 중남미 경제는 전반적 국제경제의 호조 영향으로 최근 24년간 최고치인 5.5%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고유가 현상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국제 고유가현상 연중 지속
 - 중국경기 과열에 따른 원자재 수요확대에 따른 국제시장 공급부족 심화
 - 수입은 전년비 7.9% 증가하고, 수출은 Free Zone 입주기업 수출침체로 3.1% 증가에 그쳐 무역적자가 2003년 1,560백만불에서 2004년 1,971백만불로 전년비 26% 확대됨.

- Free Zone 수출 침체로 수출신장률 하락
 - 미국, 중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호조 및 수요확대로 2004년 코스타리카 수출은 전반적 호조 기록.
 - 커피, 사탕수수 등 전통상품은 전년비 3.4% 수출신장에 그쳤으나, 식음료 가공 등 비전통 수출상품은 전년비 10.3%의 높은 신장률 기록.
 - 그러나 Intel 등 Free Zone 입주기업의 수출이 전년비 2.5%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은 전년비 3.1% 증가한 6,297백만불에 그침
- 고유가현상으로 수입은 전년비 7.9% 증가
 - 2004년 하반기에만 코스타리카의 수입석유 가격은 배럴당 15불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석유 수입에만 전년동기비 130백만불을 추가 지출하였음.
 - 특기사항으로 2004년 중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는 조달비리 스캔들이 발생, 전력통신공사, 의료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부문의 수입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

5. 주요 경제지표

| 지표명 | 단위 | 2001 | 2002 | 2003 | 2004 |
|---------|--------|---------|---------|---------|---------|
| GDP | US\$백만 | 16,382 | 16,837 | n/a | n/a |
| GDP 성장률 | % | 1.0 | 2.9 | 6.5 | 4.0 |
| 1인당 GDP | US\$ | 3,866 | 4,193 | 4,270 | 4,125 |
| 인구 | 천명 | 3,906 | 3,997 | 4,088 | 4,248 |
| 인플레이 | % | 11.0 | 9.7 | 9.7 | 13.1 |
| 실업률 | % | 6.1 | 6.4 | 6.7 | 6.7 |
| 수출 | US\$백만 | 5,021 | 5,263 | 6,102 | 6,297 |
| 수입 | US\$백만 | 6,568 | 7,187 | 7,662 | 8,268 |
| 무역수지 | US\$백만 | (1,547) | (1,924) | (1,560) | (1,971) |
| 외채 | US\$백만 | 4,443 | 3,337 | 3,753 | 3,761 |
| 외환보유고 | US\$백만 | 1,379 | 1,496 | 1,836 | 1,917 |
| 수신이자율 | % | 16.0 | 17.5 | 13.8 | 14.3 |
| 환율 | Colon | 341.4 | 378.4 | 418.0 | 459.6 |

6. 한국과의 무역관계/한-코스타리카 수출입현황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교역규모는 '96년 5,850만불을 기록한 이래 2003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1억5천만불을 기록하였다. 한국과 코스타리카간 교역에서 한국이 전통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004년 수출입현황에서도 한국이 1억2천2백만불을 수출하고, 2천8백만불을 수입하여 9,400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 한-코스타리카 수출입현황(단위 : 천불) >

| 연도 | 한국수출 | 한국수입 | 무역수지 |
|------|---------|--------|--------|
| 1996 | 51,548 | 7,022 | 44,526 |
| 1997 | 64,688 | 14,564 | 50,124 |
| 1998 | 75,357 | 43,810 | 31,547 |
| 1999 | 107,220 | 49,784 | 57,436 |
| 2000 | 109,966 | 74,838 | 35,128 |
| 2001 | 111,461 | 33,760 | 77,701 |
| 2002 | 111,202 | 39,245 | 71,957 |
| 2003 | 80,695 | 66,482 | 14,213 |
| 2004 | 122,374 | 28,591 | 93,783 |

* 자료원 : 한국 무역통계

2003년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수출은 전년비 51.7% 증가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품 수출로 인한 기구부품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 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입 붐이 꺼지면서 감소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신차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소폭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코스타리카 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제1 수출품목으로서, 2004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비 27.9% 증가한 41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중미지역 수출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우선 파나마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한 수출이 상당부분 있고, 또한 이들 지역에 수출되는 가전제품 상당부분이 멕시코, 동남아 등에서 생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상품의 실제수출은 통계에 집계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

< 한국의 품목별 수출(단위 : 천불) >

| 품목명 | 2002 | 2003 | 2004 |
|-----------|---------|--------|---------|
| 총 계 | 111,202 | 80,695 | 122,374 |
| 자동차 | 53,486 | 32,700 | 41,845 |
| 기구부품 | | 128 | 20,005 |
| 자동차 부품 | 12,710 | 10,625 | 16,192 |
| 철강관 | 5,406 | 4,194 | 8,966 |
| 합성수지 | 2,492 | 4,137 | 4,339 |
| 고무제품 | 4,172 | 4,379 | 5,882 |
| 건설광산기계 | 2,682 | 2,099 | 3,278 |
| 냉장고 | 4,647 | 2,558 | 1,622 |
| 섬유 및 화학기계 | 1,791 | 1,158 | 2,368 |
| 건전지 및 축전지 | 1,932 | 2,427 | 2,185 |
| 무선통신기기 | 695 | 2,466 | 686 |
| 기타 석유화학제품 | 1,051 | 1,405 | 963 |

* 자료원 : 한국 무역통계

한편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수입은 커피, 화훼등 전통상품과 함께, Intel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이 주종품목을 이루고 있다. 2002년까지 한국의 수입규모가 4천만불 내외를 기록해 왔으나 2003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이 전년비 두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규모가 전년비 69.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들어 반도체 수입이 예년수준보다 더 낮아지면서, 수입액이 전년동기비 56% 감소한 약2천8백만달러로, 98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다.

< 한국의 품목별 수입(단위 : 천불) >

| 품목명 | 2002 | 2003 | 2004 |
|----------|--------|--------|--------|
| 총계 | 39,245 | 66,482 | 28,591 |
| 반도체 | 24,163 | 55,191 | 17,401 |
| 컴퓨터 | 11,439 | 6,270 | 4,242 |
| 계측제어 분석기 | 24 | 972 | 938 |
| 산식물 | 990 | 1,130 | 744 |
| 무선통신기기 | 191 | 330 | 2,167 |
| 의료용기기 | 4,172 | 108 | 333 |
| 기호식품 | 1,110 | 733 | 716 |

* 자료원 : 한국 무역통계

7. 한국과의투자관계/코스타리카에진출한현지법인 현황(한국수출입은행 제공)

1. 우리나라의 對코스타리카 업종별 투자 현황(2003년 4월 말 기준)

(단위 : 건, 천불)

| 주(국가) | (건, 천미불) | 업종 |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Total |
|-------|----------|----|-------|-------|--------|-----|------|--------|--------|
| 코스타리카 | 총신고 누계건수 | | 1 | 1 | 13 | 1 | 2 | 1 | 19 |
| | 총신고 누계금액 | | 3,950 | 8,800 | 19,865 | 500 | 565 | 156 | 33,836 |
| | 총투자 누계건수 | | 1 | 0 | 10 | 1 | 2 | 0 | 14 |
| | 총투자 누계금액 | | 2,498 | 0 | 17,352 | 500 | 386 | 0 | 20,736 |

(정보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우리나라 업체별 對코스타리카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불)

| | (건, 천미불) | 업종 |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Total |
|-----------------------|----------|----|------|----|-------|-----|-------|
| CORPORACION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1 | 0 | 1 |
| CENTROAMERICANADE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1,250 | 0 | 1,250 |
| CALZADO ATLETICO S.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1,250 | 0 | 1,250 |
| SAMSUNG COSTARICA LTD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1 | 0 | 1 |

| | | | | | | |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4,400 | 0 | 4,4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4,400 | 0 | 4,400 |
| BH-COSTARICA INC.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1,100 | 0 | 1,1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1,100 | 0 | 1,100 |
| KUKDON COSKOCORPORATION SOCIEDAD ANONIM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0 | 1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0 | 500 | 5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0 | 1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0 | 500 | 500 |
| KOCOMERICA,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1,725 | 0 | 1,725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225 | 0 | 225 |
| YOUNGAN HAT,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3,300 | 0 | 3,3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3,300 | 0 | 3,300 |
| INDUSTRIAS REALTEX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1,250 | 0 | 1,25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1,250 | 0 | 1,250 |
| INDUSTRIAS TEXORO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600 | 0 | 6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200 | 0 | 200 |
| COSTARICAN SULPHUR CO. | 총신고 누계건수 | 0 | 1 | 0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8,800 | 0 | 0 | 8,8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0 | 0 | 0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0 | 0 | 0 |
| CASDeMEDIAS INTERNATIONAL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330 | 0 | 330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330 | 0 | 330 |
| ESTUCHES NOVEDOSOS INTERNACIONALES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297 | 0 | 297 |
| | 총투자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 | | | | |
|-------------------------|----------|-------|---|-------|---|-------|
| | 총투자 누계금액 | 0 | 0 | 297 | 0 | 297 |
| CAMINO DE SEDA S.A. | 총신고 누계건수 | 1 | 0 | 0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3,950 | 0 | 0 | 0 | 3,950 |
| | 총투자 누계건수 | 1 | 0 | 0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2,498 | 0 | 0 | 0 | 2,498 |
| INDUSTRIAS TEXSEDA S.A. | 총신고 누계건수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0 | 0 | 5,000 | 0 | 5,000 |

(단위 : 건, 천불)

| 현지법인 | (건, 천미불) | 업종 |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Total |
|-------------------------------------|----------|----|-------|-------|--------|-----|------|--------|--------|
| INDUSTRIAS TEXSEDA S.A.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1 | 0 | 0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5,000 | 0 | 0 | 0 | 5,000 |
| INDUSTRIAS TEXTILE J & L S.A.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1 | 0 | 0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113 | 0 | 0 | 0 | 113 |
|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0 | 0 | 0 | 0 | 0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0 | 0 | 0 | 0 | 0 |
| MYUNGCHUN KIUP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1 | 0 | 0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100 | 0 | 0 | 0 | 1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0 | 0 | 0 | 0 | 0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0 | 0 | 0 | 0 | 0 |
| COSAMTEX S.A.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1 | 0 | 0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400 | 0 | 0 | 0 | 4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0 | 0 | 0 | 0 | 0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0 | 0 | 0 | 0 | 0 |
| HOTELES DEL FUTURO, S.A.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0 | 0 | 0 | 1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0 | 0 | 0 | 156 | 156 |
|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0 | 0 | 0 | 0 | 0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0 | 0 | 0 | 0 | 0 |
| VERECO S.A.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0 | 0 | 65 | 0 | 65 |
|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0 | 0 | 65 | 0 | 65 |
| CENTRAL FYL S.A | 총신고 누계건수 | | 0 | 0 | 0 | 0 | 1 | 0 | 1 |
| | 총신고 누계금액 | | 0 | 0 | 0 | 0 | 500 | 0 | 500 |
| | 총투자 누계건수 | | 0 | 0 | 0 | 0 | 1 | 0 | 1 |
| | 총투자 누계금액 | | 0 | 0 | 0 | 0 | 321 | 0 | 321 |
| Total | 총신고 누계건수 | | 1 | 1 | 13 | 1 | 2 | 1 | 19 |
| | 총신고 누계금액 | | 3,950 | 8,800 | 19,865 | 500 | 565 | 156 | 33,836 |
| | 총투자 누계건수 | | 1 | 0 | 10 | 1 | 2 | 0 | 14 |
| | 총투자 누계금액 | | 2,498 | 0 | 17,352 | 500 | 386 | 0 | 20,736 |

(정보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8. 수입규제사례/수출국 세관확인서 제출 요구

<관세법 개정안 시행시 수출국 세관확인서 제출 필요>

코스타리카는 지난 2004.3.5일 관세법(Ley General de Aduanas)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Francisco Fonseca 관세청장은 동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관 통관과정에서의 언더밸류, 관세포탈, 세관원 결탁 부정등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향후 동 법안이 세관 부패척결 및 투명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 관세법 개정안은 밀수 및 언더밸류 등에 대한 처벌강화, 통관사 자격요건 강화, 통관사 및 세관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존 | 개정 |
|--------------|-----------------------------|-------------------------------|
| 통관사 자격 | 관세행정 학사 이상 | 석사 이상 |
| 밀수에 대한 처벌 |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포탈세금의 2배 벌금 | 6개월 이상 3년이하 징역 수입금액의 2배 벌금 |
| 세관원 서류검사 기한 | 기한 없음 | 2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
| 세관 근무시간 | 인력부족시 근무단축 | 단축근무 금지 |
| 수출통관사 통관사 고용 | 의무사항 | 선택사항 |
| 수출국 세관서류 | 선택사항 | 의무사항 |

그러나 관세법 개정안 조항 중, 수출국 세관 확인서를 통관서류로 제출하라는 조항은 일부 수입상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으로서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다. 실제로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입물품 통관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세관 보세창고가 포화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통관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정부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확인서 부재를 선언한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동 서류제출을 면제시켰는데, 동 조치에 대해서도 국가간 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코스타리카 상공회의소는 2004.3.26일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하여 동 법안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동 제소를 접수하였다.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동 법안은 자동 효력을 상실한다

2004년 6월 현재 관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의 중에 있으며, 아직은 수출국 세관서류 제출은 필요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추후 동 법안이 합헌으로 판정될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한국 관세청의 확인서를 발부받아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영사확인 등 일련의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어, 처리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9. 주요이슈/미국과 중미5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국과 중미5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국과 중미 5개국간 자유무역협정(CAFTA)이 지난 2004. 5. 28일 워싱턴에서 각국 통상장관에 의해 정식 서명되었으며, 각국 의회비준을 거쳐 2005년 시행될 전망이다. CAFTA가 시행되면 중미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대한 주시와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과 중미5국은 CAFTA 체결을 위해 지난 2003년 1월 이후 9차례 협상을 가졌으며, 2003.12.17일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협상국들이 합의에 도달하였고, 코스타리카는 2004년 1월중 2차례 추가협상을 가진 후 2004.1.25일 뒤늦게 합류하였다.

CAFTA 협상은 미국과 중미지역의 상품교역시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간다는 자유무역의 큰 흐름 위에, 국별 민감부문을 조금씩 배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세부 협상 내용은 www.ustr.gov/new/fta/cafta.htm 참조)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이 요구해 온 통신시장 및 보험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다른 중미국과는 달리 감자와 양파등 민감부문을 자유무역에서 제외시키고, 여타 돼지고기, 닭고기, 쌀, 식용유 등 부문에서도 미국의 상대적인 양보를 받아냈다.

CAFTA에 수록된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보험서비스 시장 개방>

코스타리카는 국가독점 통신시장을 점진적, 선별적으로 개방한다. 즉, 2005년 1월 1일까지 통신부문을 관리할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2006년 1월 1일 사설 데이터망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개방하며, 2007년 1월 1일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방한다. 한편 역시 국가독점 서비스인 보험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해 2008년 1월 1일 선택적 보험서비스를 개방하고, 2011년 1월 1일 책임보험을 포함한 강제보험시장까지 국내외 민간부문에 개방한다.

<돼지고기>

코스타리카는 연간 1천톤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하며 초기 5년간은 매년 100톤씩, 6~10년 사이에는 매년 125톤씩, 그리고 1~14년 사이에는 매년 150톤씩 쿼터량을 증가시키며 15년후 관세를 철폐한다. 미국은 CAFTA 발효와 동시에 자국 돼지고기 시장을 코스타리카에 개방한다.

<쇠고기>

코스타리카는 연간 150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하며 매년 10%씩 쿼터량을 증가시킨다. 초기 5년간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그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15년후 관세를 철폐함. 미국은 연간 10,300톤의 코스타리카 쇠고기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하고, 매년 쿼터량을 5%씩 증가시킨다. 역시 15년후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쌀>

코스타리카는 CAFTA 발효와 함께 미국산 5만톤의 도정되지 않은 벼(매년 2%씩 증가)와 5천톤의 쌀(매년 5% 증가)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하고 10년간 현행 관세유지 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20년후 관세를 철폐한다. 미국은 CAFTA 발효와 동시에 자국 쌀 시장을 코스타리카에 개방한다.

<닭고기>

코스타리카는 연간 300톤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하며 매년 10%씩 쿼터량을 증가시킨다. 초기 10년간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그후 7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17년후 관세를 철폐함. 미국은 CAFTA 발효와 동시에 자국 닭고기 시장을 코스타리카에 개방한다.

<식용유>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포함하는 미국산 식용유에 대해 코스타리카는 연간 1,178톤의 무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하며 매년 5%씩 쿼터량을 증가시킨다.

초기 5년간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그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15년후 관세를 철폐함. 미국은 CAFTA 발효와 동시에 자국 식용유 시장을 코스타리카에 개방한다.

<감자, 양파>

코스타리카가 미국과의 연장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중 하나로, CAFTA 발효와 함께 미국은 이들 품목 자국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코스타리카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기로 했다.

<설탕>

이 또한 코스타리카의 협상 성과의 하나로, 코스타리카는 그간 미국의 카리브연안국 지원 프로그램(CBI 정책)의 일환으로 1만5천톤의 설탕 무관세수입 쿼터를 부여받아 왔으나, CAFTA 발효시 추가적으로 1만3천톤의 쿼터를 부여받기로 했다.

코스타리카의 CAFTA 협상결과는 코스타리카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의 대가로 농산물분야 시장접근 및 산업보호 측면에서 미국의 일부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코스타리카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여타 중미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을 도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통상장관의 정식서명에도 불구하고, CAFTA 발효까지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CAFTA는 2003년중 협상종료, 2004년중 정식서명과 각국 의회의 비준을 마치고, 200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아직 회원국별 내부 정리도 마무리되지 않을 상태이다

우선 미국에서 CAFTA 토의가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대선 이후로 미뤄고 있다.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는 "CAFTA가 미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미국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해 산업공동화, 실업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명확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비준을 지지하는 공화당 측에서도 적어도 대선 준비기간 동안 CAFTA 조기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

한편, 중미 5국에서도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상황에 있다. 즉, 이들 중미국가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CAFTA의 조기 발효이지만 야당, 노동계등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서 이들을 설득하고, 의회에서의 비준을 의결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강력한 정치세력인 공공부문 노조가 CAFTA 협정의 대가로 미국에 통신, 보험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정부결정을 비난하면서 CAFTA 서명비판, 비준반대 가두시위 등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정치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10.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 자]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비자면제협정('81.10.22.)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관광객은 90일간 비자가 면제된다. 체류연장을 희망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더 연장하고 싶으면 보통 일단 출국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연장방법이다.

장기비자에는 취업비자와 학생비자가 있는데 취업비자는 체류기간이 1년이며 추가 1년씩 연장된다. 이외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등 가족중의 한명이 코스타리카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분야에 5~20만 불을 투자한 경우, 그리고 월 특정액 이상의 연금 수령자에게 장단기 영주권이 부여된다.

[비자 발급처]

- 국내: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8층
 - 전화 : (02) 707-9248/49
 - 팩스 : (02) 707-9255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내무부 이민국
 - 주소 : 600MTS OESTE DE LACSA, LA URUCA, SAN JOSE
 - 전화 : (506) 220-0355/231-2924
 - 팩스 : (506) 231-7553
 - 소요시간 : 1일, 비용 : US\$ 20

[구비서류]

- 장기비자(취업비자) : 고용계약서, 비자신청서, 전과조회서
- 단기비자(상용,관광) : 여권 사본, 비자신청서
- 학생비자는 장기비자에 준함

[방 역]

○ 특기사항 없음. (불요)

[출입국 유의사항]

○ 관세법상 US\$25 초과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며, 고가 장비라도 노트북 등은 1대까지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물품에 대해 500불까지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 경고만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6개월안에 다시 개인물품 이외 물품을 들여올 경우에는 소액의 경우라도 관세가 부과됨.

○ 출국시에는 공항세 26불(현지인은 43불)을 납부해야 하며 코스타리카공항 면세구역 내에는 환전소가 없으므로 현지화인 콜론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티켓팅을 한 후 면세구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청사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 공항 내부 면세점은 소규모로서 코스타리카 특산품인 커피술이나 목각품 이외에는 구매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

11. 환전

코스타리카의 화폐단위는 콜론(Colon)으로 현재 5, 10, 20, 25, 50, 100, 500 콜론짜리 동전과 500, 1000, 2000, 5000, 10000 콜론짜리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서 미국 달러화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고, 호텔, 국립공원, 패키지 관광비용 등은 아예 가격이 달러화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달러화로 지불해도 되고 당일 환율로 환산한 콜론화로 지불해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외국관광객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 신용카드 슬립에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신용카드 미지참시 선불요구) 출장 시 신용카드를 지참할 것이 권고된다.

환전업무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임. 그러나 대부분 상점에서 달러와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출국 시 재 환전하면 또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소액만 조금씩 환전하는 것이 좋다.

현재 코스타리카 정부의 환율정책은 관리변동환율제로서, 연간 기준으로 국내외 인플레이 차이만큼 콜론화가 평가절하되도록, 매일 조금씩 환율을 조정하는 Mini-Devalu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연간 평가절하 목표는 10% 내외로서 매일 15~20 센트 콜론씩 평가절하되고 있다. 최신의 업데이트된 환율정보는 은행 홈페이지(www.bccr.fi.c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기후

코스타리카는 지리적으로 북위 10도선에 걸친,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어, 연중 기후변화가 크지 않으며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큰 기후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맥의 영향으로 국토 중앙부분은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고도에 따라 큰 기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해안에서 고도 500~600m의 지역은 평균기온 30℃의 열대 및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국토의 약2/3를 차지하고 있다. 고도 500m~1500m까지 대부분의 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평균기온 23~28℃의 온대성 기후, 그리고 1500m~2000m까지는 연평균 14~18℃의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발 2000m이상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큰 산악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3000m이상 봉우리에는 밤에 기온이 빙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코스타리카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뉘어 특징적인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 건기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반면, 5월에서 11월까지 우기에는, 오전에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으나 오후에 구름이 형성되면서 오후에서 밤사이 거의 매일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스타리카 우기는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지만, 연교차가 크지 않은 기후에서 비로 인해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코스타리카에서는 우기를 겨울(Invierno)이라 부르고 있다. 우기 중에서도 9월과 10월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다.

한편 카리브 연안지역은9월과2월 부근을 제외하고 연중 강우량이 많아 강, 저수지, 운하 등이 발달한 열대 우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반면 태평양지역은 열대성 기후에도 건조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다수의 호텔,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 개발되어 있다.

13. 공휴일

[2005년 코스타리카 공휴일 현황]

| 일자 | 공휴일명(서어) | 공휴일명(번역) |
|------------|-------------------------------|-------------|
| 1월 1일 | Año Nuevo | 설날 |
| 3월 24일~25일 | Semana Santa | 부활절 |
| 4월 11일 | Día de Juan Santamaria | Rivas전투 승전일 |
| 5월 1일 | Día Internacional del Trabajo | 노동절 |
| 7월 25일 | Anexión del Partido de Nicoya | Nicoya 합병일 |
| 8월 2일 | Día de Virgen de Los Angeles | 성 처녀 기념일 |
| 8월 15일 | Día de la Madre | 어머니 날 |
| 9월 15일 | Fiesta Nacional | 독립기념일 |
| 10월 12일 | Día de Encuentro de Culturas | 신대륙 발견일 |
| 12월 25일 | Navidad | 성탄절 |

** 10월 12일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님(10월 12일이 원 공휴일 날짜이나 다음주 월요일을 휴무 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고사항]

3월 부활절 전후, 그리고 12월 하순에서 이듬해 2월 초순까지는 휴가철로서 상담주선이 어려우므로, 출장계획 수립시 참고요망.

14. 시차/근무시간

[시 차]

한국과 15시간 시차가 있으며, 한국이 15시간 빠름. 간단한 시간 계산방법은 한국시간에서 3시간을 빼고 밤낮을 뒤집는 것임. 즉, 서울시간 저녁 9시이면 코스타리카는 새벽 6시, 그리고 서울시간 아침 9시면 코스타리카는 전날 저녁 6시가 됨.

'90년대 초반에 잠시 썬머타임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썬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과테말라, 멕시코시티, 시카고등 도시와 동일 시간대에 속해 있고, 콜롬비아, 페루보다는 한 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보다는 3시간 늦다.

[근무시간]

코스타리카의 근무시간은 부문별, 기관별, 업종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서 08:00 - 17:00 임. 점심시간의 경우도 12:00~13:00까지가 일반적이지만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직장별 여건에 따라 상이함. 주요 기관별 근무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관공서 사무실 : 07:30 ~ 16:30
- 관공서 민원창구 : 08:00 ~ 16:00
- 공기업 : 08:00 ~ 17:00
- 은행: 09:00 ~ 16:00
- 상점: 9:00 ~ 21:00
- 공장: 교대근무 등 탄력적 운영

15. 호텔/주요 호텔리스트

호텔

[수도 산호세]

★★★★★

1. Hotel San Jose Palacio

객실 : 254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20-2034 / 220-2211
팩스 : (506)220-2036

홈페이지 : www.barcelo.com
E-mail : palacio@racsa.co.cr
우편 : P.O.Box 458-1158
가격 : US\$ 143(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1. Hotel Corobici

객실 : 203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32-8122 / 232-0618
팩스 : (506)231-5834
홈페이지 : www.tryp.corobicisolmelia.com
E-mail : reservatorobici@melia.com
우편 : P.O.Box
가격 : US\$ 12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2. Hotel Palma Real

객실 : 65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90-5060 / 290-4160
팩스 : (506)220-3409
홈페이지 : www.hotelpalmareal.com
E-mail : palmareal@racsa.co.cr
우편 : P.O.Box 694-5 B.Mexico
가격 : US\$ 89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3. Hotel Raurola Holiday Inn

객실 : 200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 222-2424 / 255-1171
팩스 : (506)222-2621
E-mail : aurola@racsa.co.cr
우편 : P.O.Box 7802-1000
가격 : US\$ 12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4. Hotel Grano de Oro

객실 : 35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55-3322
팩스 : (506)221-2782
E-mail : granoro@racsa.co.cr
우편 : P.O.Box 1157-1007
가격 : US\$ 10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1. Hotel Best Western Irazu

객실 : 327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32-4811 / 220-1441

팩스 : (506)232-4549
홈페이지 : www.superpagescr.com
E-mail : bestwestern@irazu.co.cr
우편 : P.O.Box 962-1000
가격 : US\$ 82(세금 16.39%, 봉사료 별도)
기타 : 220V 사용가능

2. Gran Hotel Costa Rica

객실 : 105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21-4000
팩스 : (506)221-3501
E-mail : granhcr@racsa.co.cr
우편 : P.O.Box 527-1000
가격 : US\$ 71(세금 16.39%, 봉사료 별도)

3. Hotel Balmoral

객실 : 116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22-5022 / 221-1266
팩스 : (506)221-7826
E-mail : eventos@balmoral.co.cr
우편 : P.O.Box 3344-1000
가격 : US\$ 8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4. Hotel Best Western San Jose

객실 : 70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55-4766
팩스 : (506)255-4613
E-mail : garden@racsa.co.cr
우편 : P.O.Box 1849-1002
가격 : US\$ 54(세금 16.39%, 봉사료 별도)

5. Hotel Del Rey

객실 : 104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57-7800 / 221-7272
팩스 : (506)221-0096
E-mail : info@hoteldelrey.com
우편 : P.O.Box 6241-1000
가격 : US\$ 72(세금 16.39%, 봉사료 별도)

6. Hotel Presidente

객실 : 100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22-3022
팩스 : (506)221-1205
E-mail : info@hotel-presidente.com
우편 : P.O.Box 2922-1000
가격 : US\$ 7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1. Hotel Diplomat

객실 : 29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1-8133 / 221-8744
팩스 : (506)233-7474
E-mail : n/a
우편 : P.O.Box 6606-1000
가격 : US\$ 3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2. Hotel Fleur de LYZ

객실 : 19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3-1206 / 257-2621
팩스 : (506)257-3637
E-mail : florlys@racsa.co.cr
우편 : P.O.Box 10736-1000
가격 : US\$ 7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3. Hotel La Mención Blanca

객실 : 11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57-5674 / 257-6198
팩스 : (506)222-7947
E-mail : mansión@racsa.co.cr
우편 : P.O.Box 1276-1002
가격 : US\$ 4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4. Hotel Vesubio

객실 : 20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56-1616 / 221-8325
팩스 : (506)256-1616
E-mail : info@hotelvesubio.com
우편 : P.O.Box 477-1000
가격 : US\$ 5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1. Hotel San Jose

객실 : 22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56-2191
팩스 : (506)221-6684
E-mail : hsanjose@racsa.co.cr
우편 : P.O.Box 1500-1002
가격 : US\$ 4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2. Gran Hotel Centroamericano

객실 : 45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1-3362 / 221-3955

팩스 : (506)221-3714
E-mail : n/a
우편 : P.O.Box 3072-1000
가격 : US\$ 23(세금 16.39%, 봉사료 별도)

APARTOTEL(콘도; 조식제공, 취사가능,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가격 저렴)

1. Apartotel Cristina(★★★)

객실 : 50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31-1618 / 220-0453
팩스 : (506)220-2069
E-mail : aparcrit@amnet.co.cr
우편 : P.O.Box 1094-2050
가격 : US\$ 5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2. Apartotel La Sabana(★★★)

객실 : 32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0-2422 / 296-0876
팩스 : (506)231-7386
E-mail : lasabana@racsa.co.cr
우편 : P.O.Box 658-1200
가격 : US\$ 69(세금, 봉사료 포함)

3. Apartotel La Perla(★)

객실 : 14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32-2185
팩스 : (506)220-4195
E-mail : mcalva@racsa.co.cr
우편 : P.O.Box 239-1017
가격 : US\$ 4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기타 지역]

★★★★★

1. Intercontinental Hotel Real Costa Rica

객실 : 260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89-7000
팩스 : (506)289-8930
홈페이지 : www.intercontinental.com
E-mail : sanjose@interconti.com
우편 : P.O.Box 11856-1000
가격 : US\$ 24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Escazu(수도에서 10km)

★★★★

1. *Hotel Tara Resort*

객실 : 14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28-6992
팩스 : (506)289-8843
E-mail : taraspa@racsa.co.cr
우편 : P.O.Box 1459-1250
가격 : US\$ 13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Escazu(수도에서 10km)

2. *Hotel Americno del Este (Boutique Jade)*

객실 : 29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24-2455
팩스 : (506)224-2166
홈페이지 : www.hotelboutiquejade.com E-mail : amehotel@racsa.co.cr
우편 : P.O.Box 303-2050
가격 : US\$ 97(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San Pedro(수도에서 10km)

3. *Hotel Milvia*

객실 : 9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5-4543
팩스 : (506)225-7804
E-mail : hmilvia@racsa.co.cr
우편 : P.O.Box 1660-2050
가격 : US\$ 6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San Pedro(수도에서 10km)

★★★

1. *Hotel San Gildar*

객실 : 27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89-8843
팩스 : (506)228-6454
E-mail : info@hotelsangildar.com
우편 : P.O.Box 1511=1250 Escazu
가격 : US\$ 98(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Escazu(수도에서 10km)

2. *Hotel Ave del Paraiso*

객실 : 28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5-8151 / 253-5138
팩스 : (506)283-6017
E-mail : paraíso@racsa.co.cr
우편 : P.O.Box 612 San Pedro
가격 : US\$ 4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위치 : San Pedro(수도에서 10km)

3. *Hotel Don Fadrique*

객실 : 20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5-8186 / 224-7583
팩스 : (506)224-9746
E-mail : fadrique@intercentro.net
우편 : P.O.Box 1754-2050
가격 : US\$ 6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San Pedro(수도에서 10km)

★★

1. *Hotel Mirador Pico Blanco*

객실 : 20개(룸서비스 제공)
전화 : (506)289-6197 / 228-1908
팩스 : (506)289-5189
E-mail : pblanco@costarica.net
우편 : P.O.Box 900 Escazu
가격 : US\$ 5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Escazu(수도에서 10km)

2. *Hotel D' Galah*

객실 : 21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34-1743
팩스 : (506)280-8092
E-mail : dgalah@racsa.co.cr
우편 : P.O.Box 85-2350
가격 : US\$ 47(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San Pedro(수도에서 10km)

★

1. *Hotel Alb. Juvenil Toruma*

객실 : 19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34-8186 / 224-4085
팩스 : (506)224-4085
E-mail : recajhi@racsa.co.cr
우편 : P.O.Box 1355-1002
가격 : US\$ 13(세금 16.39%, 봉사료 별도)
위치 : San Pedro(수도에서 10km)

APARTOTEL(콘도; 조식제공, 취사가가능,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가격 저렴)

1. *Apartotel Villas del Rio* (★★★★)

객실 : 64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89-8833 / 289-8836
팩스 : (506)289-8835
E-mail : apvrrio@racsa.co.cr / 우편 : P.O.Box 2007-1000
가격 : US\$ 125(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위치 : Escazu(수도에서 10km)

2. Apartotel Maria Alexandra (★★★★)

객실 : 14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8-1507 / 228-9072
팩스 : (506)289-5192
E-mail : apartotel@mariaalexandra.com
우편 : P.O.Box 3756-1000
가격 : US\$ 90(세금 16.39%, 봉사료 별도)

3. Apartotel Los Yoses(★★★)

객실 : 23개(룸서비스 불가)
전화 : (506)225-0033 / 225-0044
팩스 : (506)225-5595
E-mail : losyoses@racsa.co.cr
우편 : P.O.Box 1597-1000
가격 : US\$ 57(세금 16.39%, 봉사료 별도)

16. 식당

코스타리카는 관광국가로서 수도 산호세시와 관광지로 개발된 지방도시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음식 맛은 한국사람 입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도 산호세에는 다른 국제도시와 마찬가지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관광지로 개발된 해안지역에서는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현지인에게 코스타리카 전통음식을 물어보면 가요빌또(Gallo Pinto : 밥에 삶은 팥을 섞은 것)라는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요빌또는 일부 현지식당에서 아침메뉴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메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지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점심메뉴로 까사도(Casado)라는 한국의 정식 개념의 음식이 있다. Casado는 “결혼했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접시 위에 고기(혹은 생선) 한조각, 감자(혹은 밥, 바나나 등), 샐러드 등을 함께 올려 놓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들고 오거나, Casado를 사먹는데 Casado 가격은 1,000콜론(3,000원) 내외다.

17. 교통/통신/교통, 통신

항공

코스타리카는 한국과의 직항이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L.A 를 경유하여 코스타리카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미국의 테러위험 때문에 미국비자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비자가 없을 경우 뱅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한 후 다시 멕시코를 경유해서 입국해야 한다. 일반적인 캐나다 경유 노선은 KAL 을 이용하여 “인천-밴쿠버-멕시코시티-코스타리카” 또는 JAL 을 이용하여 “인천-동경-밴쿠버-멕시코시티-코스타리카” 이다. 참고로 캐나다 경유 노선일 경우 미국 경유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다.

코스타리카 취항 항공편으로는 중미 항공사로 TACA(중미연합 항공사), COPA(파나마) MEXICANA(멕시코), 등과 북미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 DELTA AIRLINE(DL), AIR CANADA(캐나다)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유럽 항공사인 IBERIA(스페인), KLM(네델란드), AIR FRANCE(프랑스)등이 있다.

코스타리카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 구간이 약 11시간, L.A-과테말라-코스타리카 구간이 약 7시간 정도 소요되며, 캐나다 경유 시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1박을 해야한다 .

택시

코스타리카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한 관계로 여행자의 교통수단으로 택시이용이 가장 적합하다. 코스타리카 택시는 빨간색으로 차체 상부에 TAXI 표시를 부착하고 다니며, 측면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도로에서는 택시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들이 불법영업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하며, 택시강도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택시를 세우는 것 보다 전화호출의 경우 호출과정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화로 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는 미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은 초기 1Km까지 285콜론, 그 후 매 1Km마다 160콜론씩 추가되며, 1시간 경과에 1,200콜론씩 시간도 함께 계산된다. 공항에는 빨간색 이외의 공항택시가 별도로 있으며 미터기 없으므로, 탑승전에 요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적지 위치에 따라 보통 15~20불사이의 요금이 부과된다.

코스타리카에는 번지수 등 주소가 이용되지 않고 주소 표기방법은 부근의 특징적인 건물을 지정하고 그 건물로부터 동(서)쪽으로 몇 미터, 남(북)쪽으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한국인에게는 생소하지만, 현지에서 이용되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줄 경우,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전화

전화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도심지 어느 곳에서도 쉽게 공중전화를 만날 수 있다. 동전전화와 카드전화가 있으나, 동전전화기는 설치수도 부족하고 사용하기 불편함으로 카드 전화 이용이 바람직하며, 전화카드는 보통 1,000콜론~3,000콜론 짜리가 있다. 코스타리카는 소국가로 각 지역별 지역번호는 따로 없어 시외전화 개념이 없고, 전국 어느지역이나 동일한 전화요금이 부여된다. 또한 전화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이므로, 코스타리카 국내전화나, 한국으로 국제 전화 시에도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전화카드는 번호기입식으로 공중전화뿐만 아니라, 호텔전화 및 일반전화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가급적 카드사용을 숙지하여 항상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호텔에서 전화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전화로 한국에 국제전화를 할 경우에는 분당 U\$3.50으로 요금이 비싼 편인 반면에, 전화카드 이용 시 단 3,000콜론(U\$6.40)으로 10분 연속 통화가 가능하다.(분당 650원 상당).

○ 전화 카드 이용 방법

197번카드와 199번 카드가 있으나 199번 카드만 영어안내를 지원하므로 199번 카드를 구입

국내 전화 시 : 수화기를 들고 199 누름 - 2번 (영어안내)-카드번호 누름 - 원하는 전화번호 누름(한국의 경우 0082 - 0을 제외한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전화연결

○ 일반전화 사용 시

00 + 82(한국 국가번호) + 0을 제외한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수신자 부담 전화

00800-1234-8000으로 전화하면 한국 통신과 연결되며, KT 카드, 월드폰 카드, VISA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할 수 있으며, 수신자 부담 전화도 할 수 있다. 요금은 분당 1500원임.

18. 유용한 연락처

<KOTRA 산호세무역관>

- 주소 : Oficentro La Sabana Edificio 6 Piso 2
Sabana Sur, San Jose
- 전화 : (506)291-1213, 1214,
- 팩스 : (506)296-5386
- 근무직원 : 관장 김기중, 현지직원 Luis Carlos, Magally Gonzalez

<한국대사관>

- 주소 : Oficentro La Sabana Edificio 2 Piso 3
Sabana Sur, San Jose
- 전화 : (506)220-3160, 3166, 3141
- 팩스 : (506)220-3168
- 근무직원 : 대사 임창순, 서기관 김창식, 영사 이영근

<한인회 >

- 회장 : 정정모 (전화 : 506-828-3434)
- 부회장 : 서정태 (전화 : 506-384-5990)
- 홈페이지 : www.costarica.or.kr

<한인교회>

- 코스타리카 한인교회 : (506) 240-8585, 8620
- 시온교회 : (506) 236-9963, 235-9959

<한국식당>

- 신라 : (506) 296-1808
- 리틀서울 : (506) 232-5551
- 베니하나 : (506) 296-0041

<비상연락처>

- 응급구조대 : 911
- 경찰 : 117
- 앰블런스 : 128
- 소방서 : 118
- 전화안내 : 113
- 국제전화 콜렉트콜 신청 : 116, 175
- 전기고장 : 126
- 교통경찰 : 222-9330, 222-9245

19. 여행시 유의사항

[의복준비]

코스타리카는 지리적으로 북위 10 도선에 걸친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수도인 산호세는 해발 1,150m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연중 23~28℃의 상춘기후와 일교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벅타이에 정장을 할 경우 한국의 하복에 해당하는 가벼운 옷차림이 적당하고, 간소복의 경우 주간과 야간용으로 반팔, 긴팔 티셔츠를 각각 준비하는게 좋으며, 비상용으로 긴팔 잠바 등을 하나 정도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전기규격]

110V, 60Hz 가 표준 전기규격임. 출장시 전기전자 제품을 휴대할 경우, 전기규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치 안]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들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강도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특히 카리브 연안 항구도시인 Limon 과 파나마 국경에 이르는 해안지역에서 마약밀매,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음.

산호세 중심지에서 주간활동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최근 지갑, 목걸이 등을 노린 전문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너 명이 한 조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시내관광 및 쇼핑시 목걸이등 귀중품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야간에 혼자서 도보로 산책하는 것은 금물임.

[건 강]

산호세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수돗물은 음료수로 적합하며, 현지인들은 대부분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음. 그러나 여행중 건강을 위해 가급적 병에 든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권고됨.

산호세(1,150m)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POAS 화산(2,709m), IRAZU 화산(3,432m) 관광시 호흡장애, 두통등 고산증세가 나타날 수 있음. 고산증세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관광중 고산증세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 즉시 저지대로 내려가는데 상책임.

[택 시]

여행자의 교통수단으로 택시이용이 가장 적합함. 코스타리카 택시는 빨간색으로 차체 상부에 TAXI 표시를 부착하고 다니며, 측면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있음. 도로에서는 택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들이 불법영업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함. 택시강도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택시를 세우는 것 보다 전화로 호출하는 것이 안전함. 즉 전화호출의 경우 호출과정이 기록에 남기 때문임.

택시는 미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은 초기 1Km 까지 240 콜론, 그 후 매 1Km 마다 135 콜론씩 추가되며, 1 시간 경과에 1,020 콜론씩 시간도 함께 계산된다. 공항에는 빨간색 이외의 공항택시가 별도로 있으며 미터기 없으므로, 탑승전에 요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목적지 위치에 따라 보통 15~20 불의 요금을 청구함.

코스타리카에는 번지수 등 주소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 주소 표기방법은 부근의 특징적인 건물을 지정하고 그 건물로부터 동(서)쪽으로 몇 미터, 남(북)쪽으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음. 하지만 현지에서 이용되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줄 경우,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실패확률은 거의 없음.

[응 급]

응급상황에서 아무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에서 “911”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911 교환은 상황에 따라 경찰, 소방서, 앰بول런스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함.

[팁 관행]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13% 판매세와 10% 서비스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식당에서 5% 정도의 팁을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불하기도 함. 기타 팁 관행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불하면 됨. 즉, 공항이나 호텔에서 포터 도움을 받을 경우 트렁크 하나당 1불, 그리고 호텔 방을 나설 때 침대에 1불정도 팁을 두면 됨.

[쇼 핑]

코스타리카 특산품으로 원두커피, 목공예품, 가죽제품 등을 들 수 있음. 원두커피는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시장에서 최고급 커피로 거래되고 있으며, 커피 애호가

를 중심으로 선호되는 상품임. 또한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서 생산된 다양한 고급목재로 만들어진 과일그릇, 접시 등 목공예품은 주방용품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음.

특산품 쇼핑장소로 고급 호텔에도 특산품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며, 아래 매장을 이용할 경우 보다 다양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

La Campesina : Cariari 호텔 전방 50m

Atmosfera : 시내 Aurora 호텔 부근

Moravia 특산품점 : 산호세 시내에서 15분 거리의 Moravia 지역에 1여개 특산품점이 있음.

20. 관광명소

관광명소

코스타리카는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이 많지 않으나, 국토의 25%가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을 만큼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Eco Tourism(생태관광)이 매우 발달한 국가이다. 특히 아직도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화산이 많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깊숙한 정글에는 수많은 조류와 원숭이, 이구아나,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어, 전세계 생물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동쪽으로는 카리브 해안을 끼고 있어 전국에 걸쳐 아름다운 해변들이 즐비하며, 이에 따른 편의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 있어 관광을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포아스 화산 (Volcan Poas)



산호세 시내에서 가장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휴화산으로(1시간소요), 709m에 위치, 폭5km, 깊이 300m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구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지형으로 인해 비가 자주 오고 구름이 덮여있어 분화구를 사진처럼 깨끗하게 보기는 쉽지 않으나, 건기인 12월에서 4월 사이 방문하면 살아있는 화산 분화구를 구경할 수 있다.

아레날 화산 (Volcan Arenal)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해발 1,633m에 위치하고, 화산 주변으로 아레날 국립공원을 조성하여, 화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진은 1993년 화산이 크게 폭발 하였을 때의 사진으로, 지금은 사진과 같은 폭발을 보기는 힘들지만, 낮에는 분화구에서 솟아 나오는 연기를, 밤에는 분화구에 어리는 붉은 용암을 볼 수 있다. 주변에는 아레날 호수(Lago de Arenal)가 있어 멋진 풍광을 자랑하며, 승마나 정글 캐노피 (줄타기), 윈드서핑 등을 즐길 수 있다.



화산 근처에는 용암으로 데워진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천혜의 자연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타바콘 호텔 (Hotel Tabacon)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는 자연을 잘 살린 온천 리조트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산호세에서 3-4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바콘 호텔 1일 숙박비는 평균 U\$180.00정도이다.

과나카스테 지방 해변 (Guanacaste)



코스타리카 북서쪽 태평양연안인 과나카스테 지방은 해변이 매우 발달된 곳으로 미국 및 캐나다 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이다. 유명 고급 호텔들이 많이 있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단위 “쉬는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보통 식사와 음료제공 까지 포함된 호텔 패키지가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은 호텔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당 U\$60.00 ~ U\$150.00 /1일 의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산호세에서 5~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만 목적인 경우에는 산호세를 경유하지 않고 과나카스테 지역의 리베리아 공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Manuel Antobnio)



코스타리카 서남단에 위치한, 해변을 끼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과나카스테 지역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자연을 잘 보존하여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여행지이다. 국립공원 안에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해변과, 해변을 따라 울창하게 자리잡은 정글이 매우 인상적이며, 관광객들에게 먹을 것을 얻으려하는 호기심 많은 원숭이와, 햇볕에 늘어져 있는 이구아나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산호세 시내에서 약 3-4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며, 국립 공원 입장료는 U\$7.00이다.

몬테베르데 (Monte Verde)



아레날 화산에서 가까운 국립공원으로 울창한 밀림에서 490여종의 진귀한 새들과 200여종의 양치류, 2500여종의 각종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들 홀로 관광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으며, 안내원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말을 타고 공원(?)을 샅샅이 둘러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관광을 계속하면서 여러모양의 폭포 및 울창한 숲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코스타리카의 명물인 갖가지 색의 개구리 및 살아있는 뱀들을 구경할 수 있다. 몬테베르데 공원안에 위치한 커피 농장을 방문하여 커피 재배방법을 알아보고, 갓볶은 향긋한 커피를 시음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산호세 시내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US\$12.00이다.

21.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스페인어 알파벳 >

a(아), b(베), c(세), d(데), ch(체), e(에), f(에페), g(헤), h(아체), i(이), j(호따), k(까), l(엘레), ll(엘레), m(에메), n(에네), ñ(에네), o(오), p(빠), q(꾸), r(에레), rr(에레레), s(에세), t(띠), u(우), v(우베), w(우베도블레), x(에끼스), y(이그리에가), z(세따)

< 모음 >

스페인어의 자,모음 수는 27개이다. 그 중 모음은 a, e, l, o, u 다섯 개이다.

a,e,o는 강모음, i와 u는 약모음이다. a는/아/, e는/에/, i는/이/, o는/오/,u는/우/로 발음하면 된다.

스페인어의 이중모음은 강모음과 약모음(ai,au,ei,eu,oi,ou), 약모음과 강모음(ia,ua,ie,ue,io,uo), 그리고 약모음+약모음(ui,iu)으로 이루어진다. 예로는 aire(공기), piano(피아노), agua(물)등이 있다.

스페인어의 삼중모음은 iai,iei,uai,uei의 네 가지이다. 약모음 사이에 강모음이 가운데 위치한다. 예로는 estudiais(너희들은 공부한다) 등이 있다.

< 자음 >

- b**는 우리말의 ㅃ처럼 발음 한다.
- c**는 a,o,u 와 함께는 ㄱ의 발음이며, e,i와 함께 쓰일 때는 ㅅ 의 발음이 된다.
- ch**는 ㅊ의 발음이다. 가끔 ㅈ 로도 발음 된다.
- d**는 우리말의 ㄷ처럼 발음 한다.
- f**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붙여 발음한다. ㅍ와 ㅎ의 중간발음이다.
- g**는 주의해야 한다. a,e,i와 같이 쓰일 때 ㄱ처럼 발음되지만, e,i와 올 때는 ㅎ의발음이 난다. gue 는 “게” 로, gui는 “기” 로 발음되지만, 모음을 모두 발음해 주어야 할 때는 u 위에 ˘를 찍어 gue(구에), gui(구이)로 만들어준다.
- h**는 무성음이다.
- j**는 우리말의 ㅎ보다 강하게 발음한다.
- l**은 ㄹ로 발음한다.
- ll**은 지역에 따라 발음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통 lle는 ye처럼, lla는 ya로, llo는 yo처럼 발음된다.
- m**은 우리말의 ㅁ과 같은 발음이 난다.
- n**은 우리말의 ㄴ처럼 발음 된다.그러나 c,g,j,q앞에서는 /응/같은 발음이 나고, m,p,v의 앞에서는 ㅁ과 같이 발음 된다.
- ñ**는 /ny~/처럼 발음되어 냐(na).뇨(no) 등의 발음이 난다.
- p**는 ㅃ처럼 발음된다.
- q**는 뒤에 ue,ui와 함께 오며, 께(que),끼(qui)로 발음된다.
- r**은 우리말의 ㄹ과 같은 발음이며, 단어의 맨 처음에 올 때는 진동하며 발음 한다.
- rr**은 r보다 강하게 진동을 내서 발음한다.
- s**는 우리말의 ㅅ과 ㅆ의 중간정도의 발음이다.
- t**는 우리말의 ㄷ과 같이 발음한다.
- v**는 우리말의 ㅂ에 해당한다. 영어에서처럼 바람소리는 안내도 된다.
- x**는 영어의 /ks/처럼 발음된다.
- y**는 야(ya),요(yo)처럼 발음하면 된다.
- z**는 중남미에서는 /s/로, 스페인에서는 번데기발음한다.

< 2중자음 >

2중자음에는 bl, br, cl, cr, dr, fl, fr, gl, gr, pl, pr, tr 이 있다.
(ex) clima(기후), abrir(열다), pluma(펜)

< 인칭대명사 >

| | 단수 | 복수 |
|-----|-----------------|-----------------------|
| 1인칭 | yo | nosotros |
| 2인칭 | tú | vosotros |
| 3인칭 | él, ella, usted | ellos, ellas, ustedes |

< 유용한 표현 >

| | | |
|-----------------|------------------------|-----------------------|
| 1 UNO [우노] | 2 DOS [도스] | 3 TRES [트레스] |
| 4 CUATRO [꾸아뜨로] | 5 CINCO [쌍꼬] | 6 SEIS [세이스] |
| 7 SIETE [씨에떼] | 8 OCHO [오초] | 9 NUEVE [누에베] |
| 10 DIEZ [디에스] | 100 CIEN(TO) [씨엥, 씨엔또] | 1,000 MIL [밀] |
| 10,000 DIEZ MIL | 100,000 CIEN MIL | 1,000,000 MILLON [밀론] |

| | |
|------------------------|--------------------------------------------------------------------------------------------|
| Buenos dias. | [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세요(아침 인사) |
| Buenas tardes. | [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세요(오후 인사) |
| Buenas noches. | [부에나스 노체스] ; 안녕하세요(저녁 인사) |
| Adios. 또는 Hasta luego. | [아디오스 / 아스따 루에고] ; 안녕히 가세요(계세요) |
| Mucho gusto. | [무초 구스또] ;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면 인사) |
| Como esta? | [꼬모 에스따] ;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구면인사) |
| Soy Hong Kil-dong. | [쏘이 홍길동] ; 저는 홍길동 입니다. |
| (Muchas) Gracias. | [(무차스) 그라시아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De nada (Por nada) | [데 나다 (쁘르 나다)] ; 천만에요 (코스타리카에서는 De nada 대신 Con mucho gusto [꼰 무초 구스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함.) |
| Perdon. 또는 Disculpe. | [쁘르돈 / 디스쿨빼] ; 미안합니다 |
| Con permiso. | [꼰 뿌르미소] ; 실례합니다 |
| Por favor. | [쁘르 파보르] ; 부탁드립니다 |
| Cuanto cuesta ? | [관또 꾸에스따] ; 가격이 얼마입니까? |
| La cuenta, por favor | [라 꾸엔따, 뿌르 파보르] ;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
| Pura Vida [뿌라비다] | 코스타리카에서만 쓰이는 표현으로 “아주 좋다” 내지는 “아무 문제없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안부를 물어올 때 대답으로 많이 활용됨 |

22. 국토

[지형 및 지리]

중앙아메리카 남부에 위치. 면적 5만 1100km²(한반도의 1/4), 북쪽은 니카라과, 남쪽은 파나마와 접해 있으며, 동쪽은 카리브해, 서쪽은 태평양에 면해 있다. 북쪽 끝 사뵘아(Sapoa) 강에서 남쪽 끝 부리카(Burica) 곳까지 길이 464km, 동서길이 259km의 남북으로 긴 모양이다. 국토의 약 50%가 삼림, 30%가 초원, 10%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해안선이 카리브해 쪽은 길이 약 250km로 단조롭고, 태평양쪽은 길이 1100km 로 니꼬야(Nicoya)반도, 오사(Osa) 반도가 있는 등 복잡하다.

국토의 북서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 과나가스데산맥, 중앙산맥, 딸라망까산맥 등 3개의 산맥이 뻗어 있다. 남동쪽으로 감에 따라 고도가 높아지며, 남부의 딸라망까 산맥에는 이 나라 최고봉인 치리뵘산(3819m)이 있다. 그 밖에 이라수, ·바르바, ·뚜리알바, ·뵘아스 등의 화산이 있으며 활화산도 많다.

카르브해안 쪽에는 동부 저지대가 펼쳐져 있고 중앙산맥과 탈라망카산맥에 둘러 싸인 지역에는 해발고도 900~1200m의 분지형 중앙고원이 형성되어 있고, 이곳에 수도 산호세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다. 태평양 쪽은 기복이 심한 구릉이 이어지고, 태평양 연안 남부는 평지가 적고 오사반도와 파나마 국경의 부리카 곳에 둘러싸인 돌세(Dulce)만이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긴 강은 레반타존강(152km)이며, 이 밖에 템피스케강은 태평양연안의 과나카스테 지방으로 흘러 들어 농업용 등의 중요한 내륙수로, 빠꾸아레강은 관광용수로 이용된다.

[주요 도시]

최대의 도시는 산호세로, 1823년 옛 수도 까르따고 대신 수도가 되었다. 바둑판 모양의 도로, 중앙고원을 둘러싸고 교회, 시장, 중앙병원 등이 있는 계획도시이다. 상공업, 금융, 정치, 교육의 중심지이며 교통망도 집중되어 있다.

까르따고는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도시로, 식민지시대 카톨릭 교구청 유적과 수도였을 때의 대성당이 남아 있으나 2번의 대지진(1841, 1910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고원 북부에 있는 알라후엘라(Alajuela)와 에레디아(Heredia)는 산호세에 다음으로 큰 도시들로서 주요산업인 커피 생산 중심지로 이에 관련된 식품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태평양 연안의 중심도시는 최대의 무역항이 있는 뿐타레나스로, 태평양 연안의 행정·산업 중심지이며 어항 및 해변 피서지이기도 하다. 교외에는 큰 화학비료공장이 있다. 한편 카르브해 연안의 중심도시 리몬은 미국 동해안 및 유럽과의 무역중심지이며, 바나나 수출이 이루어지는 제1의 항구도시이다. 국영 석유공사 정유공장이 위치해 있어 석유수입항이기도 하다.

[국토이용현황]

코스타리카는 관광국가로서 전국토의 1/3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세계 동식물종의 6%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환경에 있어 중요국가이며,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환경보존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전국민의 1/3이 어떤 형태로든 커피생산에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커피는 중요작물이며, 중앙고원이 생산 중심지이다. 태평양 연안의 저지대에서는 목축이 발달되어 있으며, 태평양 연안 남부에서는 미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팜(Palm) 농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밖에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에도 바나나와 사탕수수등이 재배된다.

주요 관광지로는 아레날화산, 과나카스테 지역 해변, 까르따고, 이라수화산, 뿐따아레나스, 엘코코해안, 오로시 온천 등으로 모두 소규모이지만 미국, 파나마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3. 국민

[인종]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중에서 백인 비율이 높은 나라로 혼혈까지 포함해 백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93%에 이른다. 백인의 대부분은 유럽, 특히 스페인계통이다. 소수민족은 흑인이 3%, 그밖에 동양계와 인디오가 각각 3%, 1%의 비율을 차지한다.

[인구 및 인구분포]

코스타리카 인구는 383만 4934(2002년)으로 집계되었고, 2004년에는 42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인구증가율은 약 2%에 이른다. 평균출산율은 '60년 7명에서 2000년 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2.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미성년자 산모가 총 출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미혼모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인구의 과반수는 중앙고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철도건설 노동자의 후예로 주로 자메이카에서 이주해온 흑인은 19세기 이후 바나나 농장으로 유입되어 주로 카리브 연안과 리몬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20세기 초까지는 심각한 정도의 인종차별을 받았으나 1949년 인종차별금지법 이후 현재는 법적으로 동등한 상태이다. 원주민인 인디오는 22개의 인디오 보호구역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파나마 국경 산악에 위치한 탈라망카 지역은 만명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장 큰 인디오 거주지이다.

[사회]

공용어는 스페인어나, 리몬지역에서는 영어도 함께 사용된다. 국교는 카톨릭으로 국민대다수가 카톨릭 교도이나, 종교법이 개정된 1860년 이후 타종교의 설립과 포교활동도 합법화되어 있다. 카톨릭 국가인 만큼 종교적 휴일도 많은데 부활절(semana santa)과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종교적 행사의 하나이다. 특히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리는 1주일을 말하는데 코스타리카 최대의 축제로서 이중 목요일(Jueves Santo)와 금요일(Viernes Santo)은 관공서는 물론 기업체 등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

[교육]

국가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고, GDP의 6.52%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문맹율은 중앙아메리카 최저인 4%로, 중, 초·중등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무상 제공된다. 산호세의 코스타리카 대학등 4개의 국립대학(학생수 57,000여명)이, 41개의 사립대학(학생수 84,000여명)이 있다.

[국민성]

높은 교육수준과 사실상 백인국이라는 점,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과 평화 속에서 쌓아 올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나 명예를 침해하는 언행을 싫어한다. 친절하고 낙천적이며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국민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라 티카(Hora Tica, 코스타리카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적극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 등으로 업무와 관련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어려운 민족 중의 하나이다.

[이민인구]

2000년 통계에 따르면 36만 6000명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영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니카라과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24. 역사

코스타리카(Costa Rica)는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이며, 신대륙 4차 항해 시 현재의 코스타리카에 다다른 콜럼버스가 현지 원주민들이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명명한 것이다.

코스타리카 지역에 스페인 정착촌의 건설은 콜럼버스 발견 이후 약 100년이 지난 후에야 본격화되었으며, 그나마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갖춘 중앙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코스타리카는 귀금속 광산의 부재, 대규모 경작을 위한 원주민 인구의 부족 등으로 스페인 지배기간 동안 스페인 식민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과테말라 총독부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방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 요인은 식민지 기간 중 코스타리카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코스타리카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동질적 인구로 구성되고, 자급자족의 농촌사회를 유지시켜 오는데 기여하였다.

1821년 현재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를 포괄하는 중미지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823년 중미연방정부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1838년 중미연방이 와해되고 코스타리카는 1848년 공화국을 선언하였다.

독립 선언 후 코스타리카는 중미지역의 낙후된 변방에서 선두주자로 빠르게 변신해 나갔다. 코스타리카의 발전과정은 1832년 중미지역 최초의 커피수출, 최초의 상업은행 설립(1864), 최초의 철도건설(1890), 최초의 바나나 대농장 건설(1880) 등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코스타리카는 자유 시민 민주주의 전통을 정착시켰다. 코스타리카의 시민 민주주의는 1917~19년 기간 중 짧은 독재와 1948년 시민혁명 등 짧은 단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중미에서 가장 오랜 민주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48년 시민혁명을 통해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폐지하고, 신 헌법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정치질서를 정착시켰고, 현재까지 정강에서 큰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정당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주고받는 단조로운 정치상황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선거철에 되면 코스타리카 국민은 열정적인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연대기>

| | |
|-----------|---------------------------------------------------------------------------------------------------------------------------------------------------------------------------------|
| 1502 | 콜럼버스 4차 항해 시 발견(카리브해 Limon항 인근의 CARIARI에 상륙) |
| 1509 | 스페인의 식민지로 편입(1542년부터 과테말라총독 관할) |
| 1821.9.15 | 과테말라가 스페인통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코스타리카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다음해 멕시코에 의해 합병됨. |
| 1823 | 중미연방의 일원이 됨. |
| 1838.11 | 코스타리카 입헌의회는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독립을 선언하고 중미연방으로부터 탈퇴함. |
| 1843 | JUAN RAFAEL MORA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코스타리카를 보위하여 대통령으로 추대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코스타리카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음. |
| 1848 | 공화국 선포 |
| 1949 | 대통령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내란이 발생, 국민자유당의 JOSE FIGUERES가 이끄는 반정부군이 승리한 후 임시대통령으로 정권을 장악, 군대철폐, 사회복지정책, 여성투표권 인정 등 진보정책을 실시하고, 18개월 후 합법적 당선자(야당후보 BLANCO ULATE)에게 정권을 인계하여 민주국가로 발전계기를 마련함. |
| 1958 | 보수당의 MARIO ECHANDI JIMENEZ가 보수세력을 배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 1974.5 | 국민자유당의 DANIEL ODUBER QUIROS 대통령 취임 |
| 1978.5 | 통합당의 RODRIGO CARAZO ODIO 대통령 취임 |
| 1982.5 | 국민해방당(PLN)의 LUIS ALBERTO MONGE가 대통령 취임 |
| 1986.5 | 국민해방당의 OSCAR ARIAS SANCHEZ 대통령 취임 |
| 1990.5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RAFAEL ANGEL CALDERON FOURNIER 대통령 취임 |
| 1994.5 | 국민해방당의 JOSE MARIA FIGUERES OLSEN대통령 취임 |
| 1998.5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MIGUEL ANGEL RODRIGUEZ ECHEVERRIA 대통령 취임 |
| 2002.5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ABEL PACHECO DE LA ESPRIELLA 대통령 취임 |

25. 국가조직

[개요]

1954년 내란 지도자였던 호세 피게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국민해방당(PLN, 구 자유당)과 기독교사회통합당(구 보수당)사이에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어져 안정된 정치풍토가 정착되었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수는 대통령이며, 국회는 단원제, 정당으로는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국민해방당(PLN), 시민행동당(PAC) 등이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정착돼 안정적이고 빈부격차도 적다.

-국 체 : 공화국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헌 법 : 총 7회(1825, 1844, 1847, 1859, 1871, 1917, 1949)의 개정을 거쳐 1949.11 현행 헌법이

공포되었다. 1969 대통령 재선 금지를 규정하였으나, 2002년 연임 아닌 재선을 허용하는 개헌이 있었다.

[행정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직선제, 임기는 4년, 연임을 금지한 재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40%이상의 득표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및 2위 득표자간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차 투표시 양후보가 동일 득표하였을 경우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유고시 제1부통령, 제2부통령, 국회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아벨 파체코(Abel Pacheco de La Espriella)는 2차투표를 통해 2002.5.8 현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의 2월 첫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출마·선출되며 임기는 4년, 제1·제2 부통령이 있다. 현 제1·제2 부통령은 Lineth Saborio Chaverri과 Luis Fishman Zonzinsky이다.

내각은 18개 부처-관방부, 기획부, 보건부, 교육부, 주택부, 노동부, 재무부, 법무부, 농목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과기부, 경제·상공부, 외무부, 여성부, 문화부, 환경·자원부, 대외무역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조직은 7개주81개시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행정의 주체는 시의 행정기구이며 시장은 시의회에서 선출한다.

[입법부]

단원제. 국회의원 57명(직선제, 연임 금지되나 중임은 허용, 4년 임기)으로 만 21세이상 피선거 가능하다. 입법권, 과세권, 협약비준권 등을 행사하며 소요사태시 법률이 보장한 시민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의석분포(2002.2.1총선):

| | |
|----------------|-----|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 19석 |
| 국민해방단(PLN) | 17석 |
| 시민행동당(PAC) | 8석 |
| 자유운동당(PML) | 6석 |
| 국민혁신당(PPC) | 1석 |
| 무소속 | 6석 |

◆의장단:

의장.....Gerardo Gonzalez Esquivel
부의장.....Juan Jose Vargas Fallas
사무총장....Carlos Herrera Calvo 및 Mario Calderon Castillo
임기.....1년(04.5.1~05.4.30)

◆회기

정기회기.....년 2회(5.1~7.31 및 9.1~11.30)
임시회기.....재적의원 2/3이상 출석으로 년중 월~목 개최

[사법부]

22명의 대법관(8년임기, 의회가 선출, 1회 연임가능)이 재직하고 있는 최고 재판소와 하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법원은 고등·지방법원과 기타 형사법원, 민사법원, 특별법원 등으로 나뉘며, 하급법관은 최고 재판소에서 임명한다. 검찰청이 사법부 내에 속해 있으며, 각종 선거와 관련,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최고선거 관리위원회의 3명의 판사(임기 6년) 임명권이 최고재판소에 있다.

◆대법원장

Luis Paulino Mora Mora(03.7.13~07.7.12)

[군사]

1949년 헌법개정을 통해 군대를 철폐한 이후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토방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26. 정치제도

< 선거 제도 >

대통령, 부통령, 국회위원, 주 의회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됨. 주지사는 주 의회 위원회 선거로 선출됨.

주지사 선거는 각주 별로 임기 만료시점에 각각 실시함.

< 정당 현황 >

- o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집권여당, 1983년 창당 (국회의석 19석). 대표 Ms.Lorena Vasquez
- o 국민해방당(PLN): 우익 제 1야당, 1951년 창당 (국회의석 17석).
대표 Mr.Francisco Antonio Pacheco
- o 시민행동당(PAC) : 좌익 성향, 2001년 창당 (국회의석 8석). 대표 Mr.Otton Solis
- o 자유운동당(PML) : 극우 중소정당, 1997년 창당 (국회의석 6석). 대표 Mr. Otto Guevara
- o 국민혁신당(PRC): 국회의석 1석
- o 무소속 : 국회의석 6석

27. 정치사회동향

<최근 정치상황>

2002년 5월 기독교사회당(PUSC)의 빠체코(Abel Pacheco)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빠체코 대통령은 국민해방당(PLN)의 아라야(Ronaldo Araya) 후보와의 경쟁에서 역사상 최초의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집권 사회당은 전체 57석의 의회 의석중 19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1 야당인 국민해방당은 17석, 그리고 전통적인 양당체제를 비집고 약진한 제2 야당 시민행동당(PAC)이 14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3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의회에서 집권당의 의석 수 부족은 여러 정책의 입안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등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및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2006년 2월에 예정되어 있다.

<최근 정치동향>

현 빠체코 정부는 코스타리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 구조적 경제문제인 재정적자 해소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오랜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합의제의 신중한 의사결정 원칙을 지켜왔으며 반면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여왔다. 여기에 현재 집권여당이 의석의 1/3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개혁입법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 집권당 내부의 이해상충도 개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현 빠체코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적자 등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2006년 대선승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집권 PUSC당의 원로들은 인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아직도 로드리게스(Miguel Angel Rodriguez) 전 대통령과 칼데론(Rafael Angel Calderon) 전 대통령 등 PUSC당의 실세들은 현정부의 각료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아직 전력, 통신, 보험 등 분야에서 국영 독점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그러나 최근 CAFTA 협상 과정에서 통신,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상태에 있어, 향후 공공부문에 대한 설득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사회동향>

지속적인 경제성장,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정치안정으로 중미5개국중 최고인 1인당 GNP 4,000불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적인 교육정책으로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유엔개발기구(UNDP)의 43번째 국가로 링크되었다. 또한, 문맹률 5%미만, 평균연령 77세, 영·유아사망률 10.2%(2000년)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남미 국가중 사회부문 발달도 두드러진다.

최근 20년간 약 35만명으로 추산되는 니카라과 불법이민의 유입으로 건축, 서비스 분야의 인력시장이 활성화되었으나, 저임금생활자로 도시빈민이 양산되고 이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도 생겨났다. 지역별로는 다수의 니카라과 이민자가 거주하는 우에탈 노르떼(Huetar Norte)지역의 빈민률이 가장 높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예산이 늘어나고 정부의 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그 중에서도 담당인력부족·규제와 감독 소홀의 2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는 보건부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과 아동 보호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보강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자유분방한 성문화와 낙태를 금지하는 카톨릭의 영향으로 조기출산, 미혼모 문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으며, 일정한 소득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 문제는 2세, 3세로 빈곤이 상속되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28. 국가원수/Abel Pacheco 대통령

[기본사항]

- 직 위 : 대통령 (PRESIDENTE)
- 성 명 : 아벨 빠체코 데 라 에스프리예자(Abel Pacheco de la Espriella)
- 생년월일 : 1933년 12월 22일
- 본 적 : 코스타리카 산호세 시
- 가 족 : 부인 레이라 로드리게스(Leila Rodríguez)여사, 아들 아벨(Abel), 세르히오(Sergio),파비안(Fabian),딸 엘사(Elsa), 요란다(Yolanda), 발레리아(Valeria)
- 취 임 일 : 2002년 5월 8일
- 임 기 : 4년

[학력]

- 부에나벤투라 꼬랄레스(Buenaventura Corrales) 초등학교 졸업
- 로스 앙헬레스(Los Angeles) 중고등학교 졸업
- 멕시코 국립자치대학(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의대 졸업
- 미국 루이지아나 주립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 정신의학과 졸업

[약력]

- 바나나 농장 근로자의 아들로 태어나 카리브연안의 리몬(Limon)지역에서 소년기를 보냄
- 1959~1961년 Guapiles 등 지방 보건소장
- 1973~1976년 국립정신병원 원장, 코스타리카 국립대학 출강
- 1980~2001년 TV방송(Ch 6)시사평론가
- 1998~2002년 국회 의원
- 2002년 4월 대통령 당선

[저서]

- 의료학술지에 의학 관련 다수 논문 발표
- 군대의 행진(Paso de Tropa), 어느 소녀 (Una Muchacha), 나무의 아들(EI hijo del Árbol), 정글에서 대사관까지(De la Selva a la Embajada) 등 이야기책 발간
- Caimán de la Caimanera 등 음악 작사

29. 주요인사

- 외무부 장관
 - 로베르또 토바르 파하(Dr. Roberto Tovar Faja)
 - 1944년 11월 29일 출생
 - 가구 및 건축회사 운영
 - 국회의원 2회 선출, 1992-1993 국회의장 역임

- 재무부 장관
 - 페데리코 까리요 (Federico Carillo)
 - 1966년 출생
 - 2004년 9월 취임

- 상공부 장관
 - 힐베르토 바란떼스(Gilberto Barrantes)
 - 1942년 7월 26일 출생
 - 2000-2002 상공부 장관, 필립모리스 중미회장, 코스타리카 담배협회 회장 역임

- 법무부 장관
 - 싸이다 베틀그라베 (Zaida Petgrave)
 - 1963년 7월 25일 출생
 - 2001-2002 대통령실 부비서실장, 상공부 부장관 역임

- 내무부 장관
 - 로헬리오 라모스 마르띠네스 (Rogelio Ramos Martines)
 - 1962년 1월 29일 출생
 - 1990-1994 경찰청장, 1998-2002 마약방지협회 회장 역임

- 농림부 장관
 - 로돌포 고토 파체코 (Rodolfo Coto Pacheco)
 - 1934 9월 6일 출생
 - 2002 농업발전협회 회장, 1997-2001 농공업 협회 회장, 유가공협회 회장 역임

- 문화, 체육부 장관
 - 귀도 사엔스 곤잘레스(Guido Sáenz González)
 - 1929년 1월 1일 출생
 - 코스타리카 연극과 교수, 코스타리카 극장협회 회장, 방송협회 회장 역임

- 과학 기술처 장관
 - 페르난도 구띠레스 오르띠스(Fernando Gutiérrez Ortiz)
 - 1998-2003 과학 기술처 부장관, 미주연합 MERCOCYT 부회장, 역임.

30. 행정구역

[개관]

◆지방행정조직:

Provincia(프로빈시아/州) ⊃ Canton(칸톤/市) ⊃ Distrito(디스트리토/區)

7개 주(Provincia)-PUNTARENAS주, GUANACASTE주, ALAJUELA주, LIMON주, SAN JOSE주, CARTAGO주, HEREDIA주(면적순)-와 81개 시(Canton), 425개 구(Distrito)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의 주체는 시의 행정기구이며, 주단위의 행정은 유명무실하다. 프로빈시아라 불리는 주는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분할구역이다.

[PUNTARENAS퐁타레나스 주]

태평양쪽 해안선의 2/3를 차지하는 남북으로 긴 모양이다. 우림(Rain Forest), 운무림(Cloud Forest)을 비롯한 국립공원, 크고 작은 섬이 있는 등 관광지로 유명하다. 국내공항을 비롯한 코스타리카의 태평양쪽 관문역할을 하는 칼데라(Caldera) 국제항이 위치하며, 니코야(Nicoya)만을 연결하는 페리호가 운항(Nicoya↔Puntarenas)되는 등 교통 및 물류중심지이기도 하다.

면적: 11,276km²

주도: Puntarenas(수도 San Jose에서 130km)

기후: 연평균 기온 28℃

고도: 표고

관할시: Puntarenas, Esparza, Buenos Aires, Montes de Oro, Osa, Aguirre, Golfito, Coto Brus, Parrita, Corredores, Garabito 등 11개 시

주요산업: 광업(금, 니켈, 철, 은)

농업(벼·파인애플·팜유·바나나·사탕수수·팥·담배·옥수수 재배)

목축업, 양식업 등

[GUANACASTE 과나카스테 주]

니카라과와 국경무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코스타리카 제 2 국제공항인 Daniel Oduber Quiros가 있다. 7개 주 가운데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면적: 10,140km²

주도: Liberia(수도 San Jose에서 281km)

기후: 연평균 기온 28℃

고도: 해발 25m

관할시: Liberia, Nicoya, Santa Cruz, Bagaces, Carrillo, Canas, Abangares, Tilaran, Nandayure, La Cruz, Hojancha 등 11개

주요산업: 농축산업(특히 원예업), 천연업, 관광업(해수욕장)

[ALAJUELA 알라후엘라 주]

수도 산호세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근교농업이 발달하고 주요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을 비롯하여 Juan Santamaría 국제공항이 위치하는 등 명실공히 San Jose주에 이은 제2의 프로빈시아(Provincia)이다.

면 적: 9,752km²

주 도: Alajuela(수도 San Jose에서 22.5km)

기 후: 연평균 기온 23~26℃

고 도: 해발 925m

관할시: Alajuela, San Ramon, Grecia, San Mateo, Atenas, Naranjo, Palmares, Poas, Orotina, San Carlos, Alfarero Ruia, Valverde Vega, Upala, los Chiles, Guatuzo 등 15개

주요산업: 커피·사탕수수의 주산지, 농업(곡류, 원예작물), 아레날(Arenal) 화산 주변 관광업

[LIMON 리몬 주]

1502년 콜럼버스가 상륙해 코스타리카(부유한 해변)이라 명명한 곳이 바로 이 지역으로, 1872년 철도건설 노동자의 후예로 주로 자마이카에서 이주해온 흑인이 19세기 이후 바나나 농장으로 유입되어 카리브 연안과 리몬지역에 살고 있다. 한편 탈라망카(Talamanca) 등 인디오 집단거주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고유문화와 전통을 유지한 채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면 적: 9,188km²

주 도: Puerto Limon(수도 San Jose에서 209km)

기 후: 연평균 기온 29℃로 고온다습

고 도: 표고

관할시: Limon, Pococi, Siquirres, Talamanca, Matina, Guacimo 등 6개

주요산업: 바나나, 코코넛, 카카오 등의 열대작물 주산지, 양식업

[SAN JOSE 산호세 주]

코스타리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사법·입법기관 및 주요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낸다.

면 적: 4,959km²

주 도: San Jose(수도)

기 후: 연평균 기온 23℃

고 도: 해발 1,160m

관할시: San Jose, Escazu, Desamparados, Puriscal, Tarrazu, Aserri, Mora, Goicoechea, Santa Ana, Alajuelita, Vazquez de Coronado, Acosta, Tibas, Moravia, Montes de Oca, Turubares, Dota, Curridabat, Perez Zeledón, Leon Cortes 등 20개

주요산업: 각종 공·산업(섬유, 포장, 플라스틱, 유리, 식품가공), 농업(커피, 담배, 곡류, 사탕수수, 화훼류, 기능성 채소류)

[CARTAGO까르타고 주]

식민지 시대 카톨릭 교구청 유적과 중앙교회가 남아 있는 유적지로 유명하다.

면 적: 3,124km²

주 도: Cartago(수도 San Jose에서 27km)

기 후: 연평균 기온 20~23℃

고 도: 해발 1,439m

관할시: Cartago, Paraíso, La Union, Jiménez, Turrialba, Albarado, Oreamuno, El Guarco 등 8개

주요산업: 농업(감자, 커피)

[HEREDIA에레디아 주]

가장 작은 면적의 주이나, Flower City로 불릴 정도로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코스타리카 식량지원센터(GENADA)와 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본교가 위치한다.

면 적: 2,656km²

주 도: Heredia(수도 San Jose에서 10km)

기 후: 연평균 기온 23℃

고 도: 해발 1,150m

관할시: Heredia, Barva, Santo Domingo, Santa Barbara, San Rafael, San Isidro, Belen, Flores, San Pablo, Sarapiquí 등 10개

주요산업: 농업(커피, 곡류, 사탕수수, 기능성 채소류 재배)

31. 대외관계

[개관]

미주기구(OAS) 및 중남미통합연합(LAIA)에 참여하고 있다. 중미공동시장(CACM) 발전에 역점을 두는 등 경제외교가 주체이며, 83년 11월 <중립국가>를 선언, 군대를 갖추지 않은 국경 때문에 주변 여러나라의 정치정세 안정과 민주화 촉진을 지향하는 선린외교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83년이후 니카라과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니카라과 반정부 게릴라 활동이 활발해지고 84년 5월 니카라과의 국경에서 총돌사건이 발생해, 미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등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작은 나라이나 국제연합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져 국제연합 평화대학과 미주인권재판소를 유치하였다.

*외교정책의 기본원칙

1. 내정불간섭
2. 자결원칙
3. 보편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 추구

*기본노선

1. 평화·민주·인권·인간다운 삶 등 인류공동 선언이라는 규범적 요소 중시
2. 경제·통상협력 증진 등 실리외교 추진

[한국과의 관계]

1962년 양국간 수교체결이후, 74년에 한국공관을 설치했다. Rodríguez 전 대통령이 방한·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코스타리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66년 문화협정, 74년 무역협정, 79년 과학기술협정, 81년 사증면제협정, 85년 체육교류협정·농수산협력협정·항공협정등을 체결하였다. 북한과는 74년 수교가 이루어졌으나 아웅산폭발사건 후 제 3국으로는 최초로 북한과 단교하였다. 2003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8,070만 달러이고 한국의 수입액은 6,648만 달러이다. 주로 자동차·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커피·목재·의약품을 수입한다. 교민수는 350명, 체류자는 120여명(2003년)이다.

[북미와의 관계]

미국

1851년 수교. 동서 냉전기간, 미국은 중미 5개국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코스타리카를 동지역내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지정,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현재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2004.1월 미-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상(CAFTA) 타결로 대미 수출시장 확대 및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97년 항공자유화협정, 98년 코-미 마약공동협력협정(유효기간 10년)을 체결하였다.

캐나다

2002년 1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코스타리카 국회에서 비준되어 발효되었다

[중미와의 관계]

중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적극적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 증대를 위해 중미 국가들간의 단합과 공동 보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여타 중미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 차이를 이유로 정치적 또는 인적 이동의 자유등 통합에는 반대의 입장에 있다. 한편, 중앙아메리카 내 다른 나라를 겨냥한 공격기지 거부 등을 골자로 하는 <에스키 플러스 II> 평화안을 성사시킨 아리아스 산체스 대통령은 8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카리브지역과의 관계]

코스타리카는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닌 카리브연안의 국가들과 사회·경제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4.6.26코스타리카 의회에서 코스타리카-카리브공동체(CARICOM)간 자유무역협정안이 비준되어, 수출시장(특히 농산물 부문)확대 및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대 서인도제도 무역 흑자액은 1996년 1,400만불에서 2002년 7,000만 불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수출품은 감자, 토마토를 비롯한 농산품과 치즈등의 유제품이다.

[남미와의 관계]

중전의 미국, 유럽 일변도에서 벗어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최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2.2.15부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것을 비롯하여, 2000.6 Grupo de Rio 회원국으로 가입됨으로서 남미와의 경제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와의 원유공급협정(San Jose협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인해 베네수엘라는 코스타리카 국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EU와의 관계]

EU는 역사적 연관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미지역 국가들에 대하여 많은 경제, 기술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의 대EU관계는 주로 경제, 무역 면에서 일방적으로 특혜를 받는 입장이다. 한편 2004년 EU GSP(일반특혜관세)특혜국에서 코스타리카가 제외되면서 수출 감소를 우려했으나 커피, 열대작물 위주의 대EU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와의 관계]

코스타리카는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만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로서, 매년 대만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를 지원받고 있다.

32. 도량형

[도량형]

코스타리카는 공식적으로 미터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실 생활에서는 다양한 전통적인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

길이와 면적에 있어서는 전통 도량형인 바라(1 Vara = 0.84m)와 만사나(10,000 제곱vara = 0.7ha)를 주로 사용하며, 옷감등의 길이를 잴때는 미국의 야드와 동일한 야르다(1 Yarda = 0.91m) 그리고 높이는 피트와 동일한 빼에 (30.48cm) 와 인치와 동일한 뿔가다 (2.54cm)를 사용한다.

액체의 부피에 있어서 비교적 부피가 큰 용기에는 미국의 갤런과 동일한 갈론 (1galon = 3.785 liter), 메디오 갈론 (1/2갈론) 을 사용하고 부피가 적은 용기에는 리터와 동일한 리뜨로 (Litro)를 사용한다.

무게에 있어 도량형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KG를 사용하고 있다.

온도에 있어서는 화씨와 섭씨를 모두 사용한다.

[전기 규격]

전기는 한국과 동일하게 60Hz의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나, 가정용 기기의 전원은 120V로 한국에서 구입한 220V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변압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산업용으로는 120V, 240V, 440V를 사용하나, 전압이 불안정함으로 전압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관공서 관행

[공무규정 및 관행]

공공기관 근무시간은 08:00~16:00(월~금)으로 일 8시간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나 관행적으로 2시간정도가 소요되어 12:00~14:00에는 되도록 관공서 방문을 피하는게 좋다. 또한 일과중 에도 관행화된 티타임(Tea Time)으로 업무가 잠시 중단되는 등 비능률적이고 나태한 행정에 현지인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한편, 특근 및 야근에 대한 공무원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나 정시퇴근이 일반적이다.

공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관공서는 토·일요일, 국경일 등 11개의 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에 휴무한다. 또한 휴가규정에 의하면 근속년수 1~5년의 경우 15일, 6~10년은 20일, 15년 이상은 26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담당직원이 휴가중일 경우 업무가 중단되거나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므로, 휴가철인 부활절 전후, 그리고 성탄절 전후에는 관공서 업무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편하다.

[민원처리 기간]

간단한 민원서류의 경우 일주일 내외에서 복잡한 서류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0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유학서류는 학위 인증에 3~4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민원접수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가는 것이 좋다.

대리인 및 대행업자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경우는 위임에 대한 변호사 공증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예상밖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가급적 본인이나 담당직원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다.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므로 억지를 쓰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특히 공무원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들과의 차이를 두지는 않으나, 아직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외국어구사 인력이 미흡함을 감안, 방문시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현지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담당관리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간단한 선물을 통해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충고하며, 특히 세관은 다른 부처에 비해 부정이 심한 곳으로 손꼽았다.

또한, 당사자가 아무리 급해도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돌려 보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전에 구비서류와 민원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34.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코스타리카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Costa Rica

[공관장]

공관장명: Ambassador Pedro Goyenaga Hernández

신임장제정일: 2003.02.12

부임일: 2003.02.06

[대사관]

주 소: Iljin Bldg., 50-1 Dowha-dong, Mapo-gu, Seoul

전 화: 02)707-9249

F a x: 02)707-9255

E-mail: empajadaCR@ecostarica.or.kr

홈페이지: <http://www.ecostarica.or.kr>

근무시간: 09:30~12:00 & 14:00~17:00(Mon~Fri)

국 경 일: Sep.15(독립기념일)

35. 물가정보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D) | 품목 내역 |
|------------|------------|----------|-------------------------|
| 식 품 기호품 | 김치찌개 | 6.00 | 1인분 |
| | 햄버거 | 2.61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1.22 |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
| 주 택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5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교 통 차 량 | 자동차 2000cc | 25,000.0 | 한국산, 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0.22 | 1구간 |
| | 택시요금 | 0.59 | 기본요금 |
| | 택시요금 | 0.33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 전 기 | 공중전화요금 | 0.06 | 시내, 3분 |
| | 국제전화(할인) | 2.10 | 현지-서울, 3분 |
| | 전기요금 | 0.08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35.00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700.00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40.00 | 비회원, 18홀 1라운드 |
| | 영화 관람료 | 3.30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217.00 | 의료보험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163.00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70.00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309.73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575.22 | 대졸, 초임 |

36. 경제정책

<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80년대 초반 외채위기를 경험한 코스타리카는 몽헤(Luis Alberto Monge, 82~86) 행정부 및 산체스(Oscar Arias Sanchez, 86~90) 행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고 경제를 안정성장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그 이전까지 코스타리카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시기 경제개발 이론이 수출지향 공업화로 전환되었고, 화훼류, 과일, 해산물, 공산품 등 비전통상품의 수출에 대해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하여, 이들상품들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에서도 환율정책 조정을 통해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율여건을 조성하였다. 자국산업 보호용으로 높게 책정된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독려하였고 일부 공기업 민영화등 개방정책이 수반되었다.

<외채위기의 순조로운 극복>

80년대 외채위기로 디폴트를 선언한 코스타리카는 90년대 브래디플랜 (Brady Plan)으로 채무조정에 성공하고 '91년 채권자 그룹인 파리클럽과 채무감축 및 상환기간 조정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코스타리카의 국제 금융기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이후 외국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코스타리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80년대 연평균 70백만불에서 90년대 352백만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기업 처리 및 재정적자가 경제현안>

지난 60년대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은 비교적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결과물로 남아있는 방대한 공기업들은 고비용 비효율로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 최근 10년간 코스타리카 경제정책의 가장 큰 실패사례로 재정불균형 심화가 지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만하게 운영된 공기업들의 지출확대를 막지 못한것에 큰 원인이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대외채무에 대해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 적자를 축소시키는 근본적 해결노력 보다는 적자 보존분을 대외채무에서 대내채무로 전환하는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내 채무는 지난 '90년 GDP의 17% 수준에서 2003년 36%까지 상승, 매년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고, 채무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차입 증가는 시장 이자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정부가 기업투자과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내채무 축소노력>

코스타리카의 가장 큰 경제문제로 재정적자를 지적하는데 정치세력간에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긴급재정세 징수 및 국채발행등 단기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공기업 민영화, 세수증대 등에 대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고 최근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정당간 이해가 해소되지않고 있다.

<관리변동환율제도>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자국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매일 몇센트씩 변동시켜나가는 Mini Devalu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제도는 사전에 해외 인플레이율과 자국 인플레이율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이다.

Mini Devaluation 제도는 실질환율 반영기능에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환율에 대한 투기심리 해소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소비재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예측된 평가절하율만큼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발생, 정부의 인플레 억제노력에는 역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Intel 반도체공장의 유치>

피게레스(José María Figueres, 94~98)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5억불 규모의 Intel 마이크로프로세서 조립공장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Intel 공장의 코스타리카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제조업 육성, 외투기업 유치등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인텔의 투자는 15개 내외의 관련 첨단기술 업체의 동반투자를 유발시키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컸지만 코스타리카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가 인텔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를 겪더라도 인텔공장이 생산과 수출을 늘리면 GDP 성장률, 수출,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경제지표가 실물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 정부에서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첨단기술산업(Intel)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로 구분 발표하고 있다.

37. 지적재산권

코스타리카 지적재산권 보호는 1949년부터 법으로 지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국립 저작권 등록원(Registr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y Derachos Conexos)이 1989년에 건립되어, 상표권 등록 및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지적재산권 국제기구(WIPO) 및 파리연합, 베르나연합에 가입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스타리카 불법 복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04년 67%로 집계되어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 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멕시코의 특허를 소지한자는 특허 소지자가 특허품 또는 특허공정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부여 받은 후 3년이내 특허를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만일 특허 소지자가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산업부는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독점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로열티 및 다른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다.

만약 의무적인 허가가 부여되고 2년이 경과되고도 특허 소지자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특허가 취소될 것이다.

상 표

관련 법에 의거 상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무한정으로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아니면 등록 자체를 재검하게 된다.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코스타리카 국립 저작권 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상업적으로 이들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보호 받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재생산하는 제품은 동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해당 기업의 사용 승인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립 저작권 등록원(Registr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y Derachos Conexos)

홈페이지 : www.registronacional.go.cr

전화 : 225-3460

팩스 : 280-7794

이메일 : derautores@rnp.go.cr

38. 소비자보호

코스타리카는 상공부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Departamento de la Promocion de la Competencia)에서 업체간의 가격단합이나 할인기간의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가격인하,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소비자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소비자 보호활동은 아직 미약한 편이나 최근들어 강하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민간단체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는 조직되지 않은 상태이다.

코스타리카 공정거래위원회 는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접수하면 일단 사실조사를 한 후 소비자 불만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양측을 불러 화의를 중용하게 된다. 대개 이 단계에서 양측은 합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주게 되는데, 만일 화의 후에도 판매자 측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39. 수입관리제도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고, 소규모 판매상까지도 직접 수입을 하고 있을 만큼 자유로워, 자의든 타의든 코스타리카 수입관리제도의 기초는 수입자유화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 수입금지: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없다.
- 수입제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 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불공정 무역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국내시장 점유율이 25% 이상 되는 제조업체 또는 관련조합은 반덤핑제소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원산지 규정: 수입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40. 관세제도

코스타리카에서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시 수입관세 이외에도 판매 세 13% 및 각종 긴급 재정세 등이 포함되어, 코스타리카 수입관세 부과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코스타리카와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 재정세가 면제되며, 따라서 13%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코스타리카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 멕시코, 칠레, 캐나다 등이다.

코스타리카의 관세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 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한다. 단, 송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BLUE BOOK 이라는 참조 가격이 명시되어 있어, 상업 송장에 기재된 제품 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 과에 기준가격으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 사정 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가격으로 비치한다. 기준가격 설정 시 제시 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가격, 가격 구성표, 카타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이다.

41. 통관절차

코스타리카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 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 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90 일 기한이 만료되기 몇 일전 세관은 공문으로 수입 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재수출시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관 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 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제 증명서(필요한 경우/ 예: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등이 있다.

통관 절차 : 통관 사 선정 -> 수입면장 작성 -> 제 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검사여부 결정 -> 화물검사 -> 화물 인수

통관은 직접 개인이 해도 무방하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 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O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 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자체 가격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수입 상품 총액이 미화 천불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익일부터 10 근무일이 경과하면 수입신고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제부는 신고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2. 시장특성

코스타리카는 인구 400만의 소국으로 구조적으로 소량다품종의 오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요청된다. 아울러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회원국이며 중미공동시장은 현재 역내 자유무역 단계를 넘어 관세동맹으로까지 발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통합을 활용하여 시장협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시장규모 협소에 따른 또 다른 현상은 독점계약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여러 공급업체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현지 수요를 발굴하는 수입대리점이 현지에서 다수 발견되는, 일반화된 수입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업체와의 상담시에도 이들은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현지 시장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상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수입상과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간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수입상담 시 신용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현지에서 관행화된 거래조건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수용이 필요하나, 상대의 신용이 검증되기까지 한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신용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3. 상거래시 유의사항

코스타리카인의 느긋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 가격, 품질 못지않게 신속한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적정 기업규모를 보유하고 적정 재고를 통해 신속한 영업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지 수입상과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간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수입상당 시 신용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한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신용상태를 점검한 후, 수출보험 등을 통한 신용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한국업체들은 제품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제품외적인 부문을 등한시 한다는 평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노력이 요청된다. 우선, 새롭게 시장에 소개된 제품을 선택할 때, 고객들이 상당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을 감안하여, 세일즈맨들이 소매상이나 일반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홍보자료를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지 수입상들은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서 소매상의 판매사원이 자사제품을 판매한 후 포장재 일부분 등 그 증빙자료를 모아둘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커미션 형태로 보상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입상들은 그동안 이러한 판촉활동 수행시 한국 수출업체의 관심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수입상의 노력에 대해 판촉물 지원, 마케팅비용 분담 등 보다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아울러 World Cup 이후 한국에 대한 국가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코스타리카 수입상들은 한국에 대하여 지리적, 문화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고, 제품하자 시 A/S 가능성 등에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대신 A/S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상호 신뢰확보 및 장기적 거래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44. 전반적 투자여건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안정, 질 높은 생활여건, 전문인력, 주변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을 강점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최근 정권들도 국가경제에서 공공부문 비중 축소, 인근 주요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 주요 투자 유망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영두에 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현재 멕시코, 칠레, 파나마,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 중미 5개국 공동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하였고,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한국등과는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코스타리카는 민관합동으로 외국인투자 진흥기구(CINDE : Coalición de Iniciativas de Desarrollo, www.cinde.org)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특히 환경친화적 첨단 기술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4천불에 이르러, 여타 중미 국과는 달리 단순 노동집약산업의 투자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10 여개 활동중이던 한국의 봉제 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철수 내지 인근국가로 이전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Intel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공장, Abbott 등 다국적 제약업체 생산공장,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콜센터 등이 코스타리카에 설치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코스타리카는 전문인력을 이용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비교적 앞선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 중남미 IT산업 진출거점으로도 활용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45. 투자유치정책

코스타리카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을 최대의 혜택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인센티브나 제약은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요 투자유치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 유치정책>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국의 관광국가로서 이미지 제고 및 산업육성을 위해 동부문 투자기업에 다양한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포함, 투자에 수반되는 장비 및 가구 수입관세 면제
- ✓ 최초 투자후 12년간 소득세 면제 ('92년 4월 이후 투자는 적용되지 않음)
- ✓ 호텔과 관광객 운송에 필요한 자본재의 빠른 감가상각 인정

이와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투자신고 시점에서 투자분야가 관광산업임을 밝히고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관광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①국가경상수지에 기여, ②고용창출, ③관광부문 수요에 적합성 여부 등이다.

한편 현재 동 관광부문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하고 있는 주요 부문을 보면 호텔업, 항공산업, 렌터카, 여객선, 여행사 운영 등이다.

<수출지향 Free Zone 입주산업 유치정책>

코스타리카 Free Zone에는 제조상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 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 및 기술연구소, 선박건조 및 수리기업 등이 입주가능하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한다.

- ✓ Free Zone 내 영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장비 및 기계, 차량 등 수입시 제세 및 영사 수수료 면제
- ✓ 투자 후 10년간 자본, 자산, 부동산 관련 제세 면제
- ✓ 현지 구매물품에 대한 판매세, 소비세 면제
- ✓ 해외송금 관련 제세 면제

- ✓ 생산량의 40%까지 수입제세 납부후 내수시장에 판매가능
- ✓ 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
 - 고성장지역의 경우 초기 8년간 100%, 추가 4년간 50% 감면
 - 저성장지역의 경우 초기 12년간 100%, 추가 6년간 50% 감면
 - 정부지정 저성장지역에 투자시 인건비로 지불한 비용의 10%를 정부지원금으로 환불

<삼림보존 인센티브>

코스타리카 정부는 관광, 환경보존에 대한 국가이미지 유지에 노력, 내외국인 법인이나 개인이 삼림보존에 노력할 경우 삼림보존확인서(Certificate for Forest Conservation)를 발급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동 확인서는 최근 2년간 대상지역에서 벌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향후 확인서 유효기간 동안 벌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담보로 발급되며, 대상토지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 ✓ 100% 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
- ✓ 경찰의 특별보호 프로그램으로 불법점유,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

한편 기존 삼림의 보호 뿐 아니라 나대지, 경작지 등에 삼림을 조성하는 경우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46. 외국인 투자제한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 방침

코스타리카는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별도 법령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국기업 투자와 차별적인 인센티브나, 제약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2. 외국인 투자 제한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참여가 제한된 사업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독점 부문>

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사업, 석유수입, 그리고 보험업은 국가 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향후 CAFTA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한 점진적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전력생산 부문>

코스타리카에서 전력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 참여가 가능함. 또한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전력생산량은 전국생산의 15%로 제한되며, 개별 민간기업의 전력생산은 20 메가와트까지만 허용됨.

<언론부문>

외국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분야로서, 외국기업은 코스타리카 일간지 발행, 광고사업 등에 투자할 수 없음.

<관광 서비스 부문>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됨. 아울러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 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됨.

<교통운송 부문>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사업 면허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 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함. 또한 해운운송 면허의 경우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함.

47. 투자진출절차

1. 외국인투자 진출 형태에 따른 절차

외국 투자기업은 코스타리카 진출 목적에 따라 지사와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설립가능한 회사형태는 주로 주식회사(Sociedad Anonima/S.A.),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R.L),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SNC),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SCS) 등 4 가지 기업 형태로 분류된다. 주로 주식회사(S.A.) 및 유한책임회사(S.R.L.) 형태의 회사가 많이 발견된다.

2. 현지법인 설립 절차 : 법인설립절차 참조

3. 투자진출 지원기관

코스타리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지원센터(CINDE : Coalición Costarricense de Iniciativas de Desarrollo, 홈페이지 : <http://www.cinde.org/index.shtml>)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절차, 관련 수속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합동사무실 운영으로 외국투자가에 대한 One-Stop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요 투자가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초기 검토단계에서 투자완결시까지 투자과정의 전 과정의 자문,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8.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1. 외국인투자 진출 형태에 따른 절차

외국 투자기업은 코스타리카 진출 목적에 따라 지사와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설립가능한 회사형태는 주로 주식회사(Sociedad Anonima/S.A.),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R.L),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SNC),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SCS) 등 4 가지 기업 형태로 분류된다. 주로 주식회사(S.A.) 및 유한책임회사(S.R.L.) 형태의 회사가 많이 발견된다.

2. 현지법인 설립 절차

< 1 단계 : 회사 정관의 작성 >

공증사무소(Notario Público)에서 회사정관을 스페인어로 작성. 동 정관(acta constitutive)에는 최소 2 명의 주주명 및 주소, 자본금, 회사 청산 방식 등에 대한 상세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회사명은 가상의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로 표시되어야 함.

< 2 단계 : 상업등기소 등록>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등록은 법인의 상호등록, 법인번호 발급 등의 의미가 있음.

신규 회사설립, 기존회사 자본금 증액 등 투자행위는 은행계좌 입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정관을 등기하는 시점에 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이 입금되어야 함. 일단 기업이 등록되면 은행예치금은 기업대표자만 인출 가능함.

회사설립 등기는 통상 15~30 일 내외가 소요됨.

< 3 단계 :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소정양식(Form D-140)을 제출함으로써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고, 회계서류를 확인받음. 동 납세자번호는 정부의 각 공식적인 서류 기입시 사용하며, 회사의 지출행위에 따른 공식 영수증 발급에도 사용됨(납세자 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음)

< 4 단계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회사 설립 후, 투자금액이 5 만불 이상인 경우는 과실송금, 배당금의 송금을 위해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함.

아울러 Free Zone 입주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대관리청, 임시반입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관세청 승인 등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5 단계 : 기타 면허 신청 >

사업업종에 따라 필요시 환경면허, 위생확인 등 면허와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영리활동기업은 소재지 시청에 영업면허(Patente Municipal)를 발급받아야 함.

49. 산업단지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인 농축산 국가로서 바나나, 멜론, 파인애플, 커피 등 농산물의 경우 지역별로 대규모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육성된 산업이며,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국의 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

다만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품을 수출하는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Free Zone에 입주하여 세금감면 등 혜택과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세부사항은 “자유무역지대” 항목 참조)

50. 자유무역지대/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는 국가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으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외국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투자 15만불 이상 등 적정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Free Zone 입주대상 >

- 수출또는재수출을 목적으로 Free Zone에 입주하여 상품을 제조,조립,가공처리하는 기업
- 외국이나 Free Zone 입주기업에 용역을 제공(수출)하는 기업
-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설 Free Zone 운영기업
-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
- 선박 건조, 수리 및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Shipyard, Dry Dock 운영업체

< Free Zone 입주기업 주요 혜택 >

- 생산에 투입되거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원자재, 소모품 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 면제
- WTO 가이드라인에 의거 2007.12.31일까지 Free Zone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출세, 지방세, 배당소득세 100% 감면
- 자본금 재송출 보장
- 기업설립 및 운영과 관련 행정수속 일원화, 간소화, 지원사무소 운영
- 전체 매출의 25%까지 코스타리카 내수시장에 판매 허용

< 주요 Free Zone 현황 >



America Free Zone
Phone: (506) 239-4450
Fax: (506) 265-6431
info@americafreezone.com



Metro Free Zone and Office Park
Phone: (506) 239-5000
Fax: (506) 239-1878
metrofz@racsa.co.cr
www.metrofz.co.cr

Bes Free Zone Industrial Park
Phone: (506) 438-1111
Fax: (506) 438-2222



Parque Industrial Zona Franca SARET
Alajuela
Phone: (506) 443-0001
Fax: (506) 443-0202
management@gruposaret.com
www.gruposaret.com



Forum Office
Phone: (506) 204-7010
Fax: (506) 204-7020
akader@genesis.co.cr
iclar@genesis.co.c
www.genesiscostarica.com



Parque Industrial Zona Franca SARET
Puntarenas
Phone: (506) 666-2412
Fax: (506) 663-2650
zfp@gruposaret.com
www.saretzfp.com



Global Park Free Zone & Business Park
Phone: (506) 209-5959
Fax: (506) 209-5960
mercadeo@globalparkcr.com
www.globalparkcr.com



Ultrapark Free Zone
Phone: (506) 293-4616
Fax: (506) 293-4715
info@ultrapark.com
www.ultrapark.com



Zeta Group (Industrial Parks in Cartago,
Alajuela and Heredia)
Phones: Headquarters (506) 224-3333
Cartago: (506) 573-7610
Alajuela: (506) 441-2698
Toll Free: 800-8424882
Fax: 234-7444
grupoz@racsa.co.cr
www.grupozeta.net

51. 조세제도

< 세제 개요 >

코스타리카 조세제도는 영토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국적과 주소지를 불문하고 코스타리카 영토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세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세목을 보면 법인 및 개인 소득세, 판매세, 선택소비세, 수입관세, 재산세, 특별 재정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요 세목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코스타리카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조금씩 수정되어 오면서 현재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반면 세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누적된 재정적자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정부는 세제단순화 및 세원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으나 3년 이상 논의만 될 뿐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 소득세 >

법인과 자연인이 코스타리카 영토에서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법인과 자연인으로 구분하여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다.

| 연간 법인소득 규모 | 소득세율 |
|----------------------------|------|
| 11,544,000 콜론 미만 | 10% |
| 11,544,000 ~ 23.221.000 콜론 | 20% |
| 23.221.000 이상 | 30% |

| 연간 개인소득 규모 | 소득세율 |
|-----------------------|------|
| 770.000 콜론 미만 | 0 |
| 770.000 ~ 1.252.000 | 10% |
| 1.152.000 ~ 1.921.000 | 15% |
| 1.921.000 ~ 3.850.000 | 20% |
| 3.850.000 콜론 이상 | 25% |

< 판매세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시 부과되며 일률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가 세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매월 납세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제정된 법령 7293 호에 의거 주요 생필품, 공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교육기자재 등의 판매시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다.

< 선택소비세 >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일정품목에 대해 수입 및 판매시 부과하며 세율을 품목별로 10%에서 75%까지 유동적이다. 내국상품이 수출된 후 3년 이내에 재수입될 경우 동 세금은 면제된다.

< 수입관세 >

물품 수입시 부과하며 국가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 긴급재정세 >

재정적자를 완화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금으로서 대부분 물품 수입시 1% 세금을 부과한다.

52. 사회간접자본

< 전력 >

코스타리카의 최대 공기기업인 전력통신공사(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 ICE)의 지속적인 투자와 전력보급 확대노력으로 1994~2001년 기간중 전력생산량이 2배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05년 현재 전력생산량은 1,775MW, 전력보급율은 97%에 이르고 있다.

1990년 전력생산에 대한 정부독점 규정이 완화되면서 수력, 풍력, 지열발전 부문에서 제한된 규모이지만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5년 현재 민간부문은 전력생산능력의 10.4%, 실제 발전량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다양한 발전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전체 발전량의 82%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수력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의 독특한 발전형태로서 전국에 산재한 102개의 화산을 이용한 지열발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4.4%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99%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것임을 자랑하고 있다.

전력 사용료는 산업용 기준으로 U\$ 0.07 ~ 0.11 / KWH 내외이다.

< 통신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지역에서 비교적 통신인프라 보급이 잘 된 국가로 꼽히고 있다. 2002년 기준 코스타리카의 주요 통신인프라 보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고정식 전화회선 보급 : 251 / 1000 명
- 3분 시내전화 통신비 : U\$ 0.03
- 휴대폰 사용자 수 : 111 천명
- 인터넷 사용자 수 : 193 천명

코스타리카 정부는 2001 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 한국의 삼성전자
2 천 3 백만불 규모 ADSL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5 년 6 월 초고속 인터넷망
개통식을 개최한 바 있고 2005 년 말까지 10 만회선의 ADSL 회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교통 >

코스타리카는 국토면적이나 인구 대비 비교적 양호한 도로망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이으며, 2005 년 현재 약 36,000Km 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7%가 포장도로이다.

정부의 관리노력과 투자 부진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산업, 관광산업 업계로부터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8 년 도로공사(CONAVI : Consejo Nacional de Vialidad)를 설립, 유류세의
일정부분을 배정하여 도로보수를 담당케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모두 접해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Puntarenas, Caldera
항구를, 대서양(카리브해) 연안에 Limon, Moin 항을 보유하고 있다. Limon 항에는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기착하며, 수출입 화물물동량의 80%가 이들 대서양 연안 항구를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서양 연안 항구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2 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산호세 외곽 16Km 에 위치한
Juan Santamaria 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 서북부 Guanacaste 지역에 위치한 Daniel
Oduber 공항이다.

연간 200 만명이 이용하는 Juan Santamaria 공항은 2001 년 미국 Bechtel 사 컨소시움에
20 년간 운영권을 넘겨 민간기업이 운영중이다. Juan Santamaria 공항은 2010 년까지
이용객을 현재의 2 배로 확대하여 중미지역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편 Daniel Oduber 공항은 관광지에 위치하여 연말 관광성수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관광객을 실은 부정기 전세기가 기착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424Km 의 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영 철도청(Incofer : Instituto
Costarricense de Ferrocarriles)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투자 부족 및
영업손실 누적으로 지난 1995 년 이후 사실상 운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현재 부정기적으로 관광객을 실은 관광열차와 바나나 운송에 투입되는 등 제한적 운행에
그치고 있다. 철도는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도로운송을 분담할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정상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53. 노동여건/코스타리카 노동여건

코스타리카 노동관계 규정은 노동법(Codigo de Trabajo)을 따르고 있으며, 동 노동법에서는 “노동서비스와 금전적 보상의 교환관계와 고용주가 고용자의 지휘통제 관계”가 존재하면 고용이 성립하며 노동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노동법에 규정된 주요 노동관계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 >

- 일일 및 주당 근무시간
 - 주당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 기준 주간 8시간, 야간 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함.
 - 19:00~05:00 사이에 3시간 반 이상 근로하면 야간근로로 간주됨.
- 초과 근무시(시간외, 휴일특근) 지급율
 -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50%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함.
 - 휴일 근무의 경우 100% 할증임금을 지급함.
- 법정 공휴일
 - 1/1 일, 4/11 일, 부활절 목-금요일, 5/1 일, 7/25 일, 8/15 일, 9/15 일, 12/25 일
 - 8/2 일, 10/12 일은 공휴일이나 급여지불이 강제되지는 않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월급(기본급)은 통상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명목금액이며, 공장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급과 월급의 중간형태인 월 2 회 급여지불이 일반적임. 한편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법정 상여금으로 매년 12 월 1 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매년 2 주(12 근무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코스타리카사회보장법에의거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직업상 위험과 관련, 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구(CCSS)는 불구 및 노후연금과 함께 질병, 임신, 직업병 및 사고시 피고용인 및 부양가족의 진료, 입원, 실업 보상금을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함.

사회보장세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23%를 부담해야 하며, 노동자도 급여의 9%를 분담한다. 사회보장세의 주요 항목별 납부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고용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 사회보장기구징수 | | |
| 의료출산보험 | 9.25 | 5.50 |
| 연금생명보험 | 4.75 | 2.50 |
| 기타기관 징수 | | |
| 근로자 의무저축 | 0.50 | 1.00 |

| | | |
|------------|--------------|-------------|
| 빈곤퇴치기금 | 5.00 | |
| 직업훈련원 | 1.50 | |
| 기 타 | 2.00 | |
| 총 계 | 23.00 | 9.00 |

< 최저임금 >

코스타리카는 매년 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직종별, 숙련도별로 세분화된 수치를 발표하고 있음. 2005 년 1 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US\$1=c/475)

- 농업분야 (농수축산, 광업, 건설 등 부문에 적용) : 일급
 - 미숙련자 : c/3,903
 - 반숙련자 : c/4,288
 - 숙련자 : c/4,475
 - 전문노동자 : c/5,377

- 일반 노동자 : 월급
 - 미숙련공 : c/117,014
 - 반숙련공 : c/126,973
 - 숙련공 : c/136,409
 - 고등교육 기술직 : c/181,082
 - 대졸 사무직 : c/221,829

- 기타 최저임금 규정
 - 커피수확 노동자 : 상자 당 c/388.25
 - 가정부 : 월 67,648 (음식 별도 제공)
 - 신문배달원 : 신문가격의 15%

54.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개요 >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제도는 "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구 (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CCSS)"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 기구에 등록하여 일정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의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혜택을 지원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급여의 3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고용주가 23%, 피고용자가 9%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외국인과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CCSS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CCSS 소속 병원의 의료시설 낙후와 장시간 대기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 적용범위 >

CCSS 제도는 자영인,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인에 의무적임.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가진 고용주는 모두 CCSS에 등록하여야 한다.

55. 현지 생활여건

< 한국식품조달여건 >

한국 교민 수는 약 400명 내외로 작은 규모이지만, 약 4개의 한국식당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라면 등 한국식품을 취급하고 있어 한국식품 조달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한국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한국식당과 중국 식품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신라 식당 : (506) 296-1808
- 리틀서울 식당 : (506) 232-5551
- 베니하나 식당 : (506) 296-0041
- 사또 식당 : (506) 221-3331
- 중국 식품점 ASIA : (506) 236-3103

현지에서 입수하는 한국식품 재료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 것을 다시 들여온 것이라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중국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유효기간을 지운 후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교포들은 인편에 고추장, 된장, 고추가루, 김, 미역, 젓갈류 등의 식품을 가져오기도 한다.

< 생필품 구입 용이성 >

생필품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물자는 비교적 풍부한 편임. 공산품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며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미국계 Price Smart, Automercado, Hipermas, Mas x menos 등 대형 유통체인망이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과 현지 중산층 이상 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현지 중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주말시장 등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선한 야채, 과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 의료보험, 병원, 약국 >

일반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대부분이 CCSS 라는 사회보장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거의 무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 시설면이나 의료기술 수준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없이 고급 민간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고급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임. 대표적인 민간 종합병원으로는 CIMA, Clinia Catolica, Clinica Biblica 등이 있다. 그러나 진료비는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의

경우 1 회에 U\$50 불 이상을 청구하며, 이외에 x-ray 등 기기검사료와 약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감기약 등 일반 약품은 약국(Farmacia)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약국은 시내 곳곳에 있고 일부는 24 시간 영업한다.

< 레저여건 >

산호세 시내에서는 클럽형태로 골프, 수영, 테니스,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레저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클럽을 벗어나 시내에서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

코스타리카 주요 관광지로는 산호세 인근의 뽀아스(Poas), 이라수(Irazu) 화산분화구가 있고 커피농장을 견학하는 관광 패키지도 있다. 산호세에서 4 시간 거리에 아레날(Arenal) 활화산과 따바콘(Tabacon) 노천온천은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한편 미국, 유럽인들은 코스타리카 북부 태평양 연안의 해안지역을 많이 찾고 있으며, 스페인의 Melia, 미국의 Four Season 등 호텔기업이 리조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미국인들의 별장 개발 붐이 일고 있어 바닷가를 끼고 고급 주택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골프장은 산호세 시내 및 인근에 정규코스 2 개, 9 홀 코스가 2 개 있으며, PRIVATE CLUB 은회원 초청을 받아야 입장이 허용된다. Public 코스는 Valle del Sol 클럽이 있으며 라운딩 비용은 그린피 35불, 캐디피 15불, 클럽 임차료 35불, 그리고 전동카트를 이용료는 20 불(선택사항)이다.

< 치안상태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절도, 강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연말에는 치안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지를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에서도 강도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세일즈 출장자의 경우 시내(특히, 구시가지)에서 노상강도에게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내택시에는 빨간색 차체에 노란색 표시등을 부착한 일반 택시 이외에 택시면허 없이 운행하는 사이비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한쪽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 택시, 그리고 전화를 통해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56. 이주 정착가이드

< 주거환경 및 주요 거주지역 >

산호세는 북위 10 도선 부근의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해발 1,150 미터 고원지대에 위치연중 우리나라의 봄날씨에 해당하는 상춘(常春) 기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적인

주거여건은 매우 양호하며,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진이 잦은 만큼 주거지 선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호세 시에서는 높은 고층건물이 많지 않으며, 최근들어 고층 아파트가 주거 형태로 인기가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현지인들은 고층보다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지를 선호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기둥과 벽면은 튼튼하게 짓지만 천정부분은 가벼운 건축 자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지진에 대비하는 현지 건축물의 특징중 하나이다.

코스타리카의 특징적인 거주형태로 콘도미니오(Condominio)가 있다. 콘도미니오는 동일 담장 안에 수 채에서 수 십 채의 주택들이 들어있는 형태로 공동 경비를 두고 단지를 관리 하기 때문에 치안과 관리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비로 입주자들이 분담한다.

< 주택임차 >

코스타리카의 주택임차료는 지역별, 주택형태별로 임차료가 매우 상이하다. 20 평 내외의 서민 아파트는 월 300 불 내외면 임차가 가능하지만, 골프장 주변에 조성된 고급 주택은 월 5,000 불까지 임차료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식 공동주택은 대개 150~200 s/m 규모이며, 우리나라 평수로 약 40~60 평 내외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내진설계로 기둥, 벽면이 많아 실제 거주공간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 임차는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택을 구하는 차체는 별문제가 없다.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한달치 임대료에 해당하며 전액 임대주가 부담한다.

주택임차료의 인상은 통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데 통상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되며, 미화 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미국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 개월치의 임차료를 내며 (2 개월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 해지 시에 반환토록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57. 자녀 교육여건

< 교육환경 >

정식 한국학교는 아니지만 한인회에서 설치한 한글학교가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장소는 한인교회이다. 수업료는 1인당 월 U\$10 (4000 콜론)수준이며, 연락처는 교사협의회장 이승희(506-237-1930), 한인회 문화부장 박대인(506-226-3817)으로 하면 된다.

외국인 학교로는 미국계 Country Day School (CDS),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AIS), 영국계 British School 과 현지 Lincoln School 그리고 기타 다수의 현지 International School 들이 있다.

이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하면 됨. 대부분 외국인 학교에서 영어 내지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을 쓰도록 함.

교육비는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입학금이 약 1,000~1,500 불, 등록금이 학기당 약 500~1,000 불, 수업료가 월 500~800 불 정도임. 이외에 통학버스 이용시 월 90~120 불이 추가로 소요된다.

58. 진출기업/코스타리카 진출기업

▣ 부흥 코스타리카

B00 HUNG COSTA RICA,S.A
Add : SAN JOAQUIN DE FLORES, HEREDIA, COSTA RICA
Tel : (506) 265-5975
Fax : (506) 265-6238
Pres : 백옥자 / BAEK OK JA
업종 : 섬유제품(신사복) 제조업
진출년도 : 1987
종업원 수(한국인/현지인) : 2/220
투자금액 : 60 만불
매출액 : 3 백만불/연

국내 모기업 : (주)부흥
Add : 서울 금천구 아산동 345-29
Tel : (02) 869-7111
Fax : (02) 861-4059

▣ 대우버스 코스타리카

Daewoo Bus Costa Rica S.A.
Add : 2.5Km Oeste Centro Comercial Santa Ana
San Jose, Costa Rica
Tel : (506) 282-9322
Fax : (506) 282-5555
Pres : 김윤태 / Yoon Tae Kim
업종 : 버스 조립생산 및 판매
진출년도 : 1995
종업원 수(한국인/현지인) : 6/120
투자금액 : 500 만불

국내 모기업 : (주)대우버스

Add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88-9

Tel : (051) 811-4040

Fax : (051) 811-4055

Pres : 최영재

59. 주요 경제지표

| 지표명 | 단위 | 2001 | 2002 | 2003 | 2004 |
|---------|--------|---------|---------|---------|---------|
| GDP | US\$백만 | 16,382 | 16,837 | n/a | n/a |
| GDP 성장률 | % | 1.0 | 2.9 | 6.5 | 4.0 |
| 1인당 GDP | US\$ | 3,866 | 4,193 | 4,270 | 4,125 |
| 인구 | 천명 | 3,906 | 3,997 | 4,088 | 4,248 |
| 인플레이 | % | 11.0 | 9.7 | 9.7 | 13.1 |
| 실업률 | % | 6.1 | 6.4 | 6.7 | 6.7 |
| 수출 | US\$백만 | 5,021 | 5,263 | 6,102 | 6,297 |
| 수입 | US\$백만 | 6,568 | 7,187 | 7,662 | 8,268 |
| 무역수지 | US\$백만 | (1,547) | (1,924) | (1,560) | (1,971) |
| 외채 | US\$백만 | 4,443 | 3,337 | 3,753 | 3,761 |
| 외환보유고 | US\$백만 | 1,379 | 1,496 | 1,836 | 1,917 |
| 수신이자율 | % | 16.0 | 17.5 | 13.8 | 14.3 |
| 환율 | Colon | 341.4 | 378.4 | 418.0 | 459.6 |

(자료원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EIU)

60. 대외거래지표/코스타리카 대외거래 지표

< 코스타리카 대외거래 지표 >

| 지표명 | 단위 | 2001 | 2002 | 2003 | 2004 |
|----------------|--------|---------|---------|---------|---------|
| 수출 | US\$백만 | 5,021 | 5,263 | 6,102 | 6,297 |
| - 커피 | US\$백만 | 165.1 | 193.6 | 193.6 | 199.6 |
| - 바나나 | US\$백만 | 516.0 | 477.5 | 553.1 | 545.6 |
| - 제조상품 | US\$백만 | 1,029.3 | 1,023.2 | 1,057.3 | 1,230.2 |
| - Free Zone 수출 | US\$백만 | 2,247.4 | 2,630.6 | 3,303.3 | 3,230.0 |
| 수입 | US\$백만 | 6,568 | 7,187 | 7,662 | 8,268 |
| - 원자재 | US\$백만 | 3,645.2 | 3,982.4 | 4,209.1 | 4,711.3 |
| - 소비재 | US\$백만 | 1,273.7 | 1,387.8 | 1,369.8 | 1,493.8 |
| - 자본재 | US\$백만 | 1,048.1 | 1,241.8 | 1,420.9 | 1,255.2 |
| - 건축자재 | US\$백만 | 189.8 | 202.3 | 215.9 | 225.4 |
| - 연료 및 오일 | US\$백만 | 410.5 | 371.7 | 446.0 | 582.2 |

| | | | | | |
|-------|--------|---------|---------|---------|---------|
| 무역수지 | US\$백만 | (1,547) | (1,924) | (1,560) | (1,971) |
| 외채 | US\$백만 | 4,443 | 3,337 | 3,753 | 3,761 |
| 외환보유고 | US\$백만 | 1,379 | 1,496 | 1,836 | 1,917 |
| 환율 | Colon | 341.4 | 378.4 | 418.0 | 459.6 |

6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코스타리카 주요국별 수출입현황

<코스타리카 국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국별 | 2001 | 2002 | 2003 | 2004 |
|-----------|---------|---------|---------|---------|
| 과테말라 | 175.7 | 169.8 | 181.7 | 198.0 |
| 엘살바도르 | 131.4 | 111.0 | 124.8 | 144.0 |
| 온두라스 | 90.3 | 99.4 | 105.0 | 129.4 |
| 니카라과 | 152.2 | 143.8 | 163.9 | 194.6 |
| 파나마 | 109.5 | 121.1 | | 136.0 |
| 미국 | 757.4 | 756.0 | 824.0 | 862.8 |
| 캐나다 | 25.0 | 26.7 | | 25.4 |
| 멕시코 | 41.3 | 61.7 | 42.0 | 53.6 |
| 콜롬비아 | 13.2 | 15.5 | 15.3 | 20.4 |
| 베네수엘라 | 20.8 | 15.8 | 15.6 | 25.4 |
| 독일 | 106.3 | 125.9 | 147.0 | 148.8 |
| 영국 | 41.0 | 53.9 | 52.9 | 65.6 |
| 이캐리 | 93.1 | 73.2 | 77.1 | 68.8 |
| 스웨덴 | 45.4 | 55.2 | 70.5 | 70.5 |
| 일본 | 15.1 | 16.2 | 23.0 | 22.3 |
| 기타 | 305.3 | 286.2 | 307.8 | 317.7 |
| 수출자유지역 수출 | 2,247.4 | 2,630.6 | 3,303.3 | 3,230.0 |
| 보세가공 수출 | 366.4 | 354.1 | 331.7 | 367.3 |
| 합계 | 5,021.4 | 5,263.5 | 6,102.2 | 6,297.0 |

*정보원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관세청

<코스타리카 국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국별 | 2001 | 2002 | 2003 | 2004 |
|-------|---------|---------|---------|---------|
| 과테말라 | 138.1 | 142.6 | 146.1 | 154.0 |
| 엘살바도르 | 78.2 | 84.6 | 77.8 | 86.9 |
| 온두라스 | 36.9 | 31.7 | 37.7 | 29.7 |
| 니카라과 | 38.1 | 48.9 | 50.9 | 50.8 |
| 파나마 | 116.9 | 111.6 | | 94.2 |
| 미국 | 1,497.1 | 1,587.4 | 1,768.1 | 1,802.0 |
| 캐나다 | 68.4 | 67.6 | | 73.9 |
| 멕시코 | 365.4 | 354.5 | 358.5 | 394.5 |

| | | | | |
|-----------|---------|---------|---------|---------|
| 콜롬비아 | 143.4 | 154.1 | 200.4 | 259.2 |
| 베네수엘라 | 284.5 | 280.4 | 246.1 | 303.4 |
| 독일 | 126.7 | 143.9 | 149.6 | 157.4 |
| 영국 | 47.0 | 80.1 | 74.2 | 76.0 |
| 이태리 | 67.0 | 80.2 | 105.0 | 83.5 |
| 스웨덴 | 10.1 | 13.2 | 20.4 | 25.1 |
| 일본 | 214.6 | 287.0 | 243.9 | 229.3 |
| 기타국가 | 918.2 | 1,064.3 | 1,332.9 | |
| 기계장비 일시반입 | 249.9 | 268.8 | 262.7 | 332.1 |
| 수출자유지역 수입 | 1,788.2 | 1,966.9 | 1,990.6 | 2,171.2 |
| 보세가공목적수입 | 248.9 | 253.1 | 229.7 | 233.1 |
| 합계 | 6,568.7 | 7,187.9 | 7,662.6 | 8,268.0 |

*정보원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관세청

62. 주요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코스타리카 품목별 수출입현황

< 코스타리카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 품목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
| 커피 | 165.1 | 193.6 | 193.6 | 199.6 |
| 바나나 | 516.0 | 477.5 | 553.1 | 545.6 |
| 육류 | 25.5 | 21.5 | 22.3 | 21.7 |
| 사탕수수 | 35.5 | 27.0 | 24.8 | 38.1 |
| 농수산물 | 539.6 | 565.0 | 616.0 | 664.5 |
| 제조상품 | 1,029.3 | 1,023.2 | 1,057.3 | 1,230.2 |
| 보세가공 수출 | 366.4 | 354.1 | 331.7 | 367.3 |
| Free Zone 수출 | 2,247.4 | 2,630.6 | 3,303.3 | 3,230.0 |
| 총계 | 4,921.4 | 5,264.0 | 6,102.2 | 6,297.0 |

*정보원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관세청

< 코스타리카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 품목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
| 원자재 | 3,645.2 | 3,982.4 | 4,209.1 | 4,711.3 |
| - 광업용 | 3,490.2 | 3,809.4 | 3,985.6 | 4,469.5 |
| - 농업용 | 155.0 | 173.1 | 223.5 | 241.9 |
| 소비재 | 1,273.7 | 1,387.8 | 1,369.8 | 1,493.8 |
| - 비내구성 | 854.2 | 915.1 | 926.4 | 1,004.2 |
| - 내구성 | 419.4 | 472.8 | 443.4 | 489.6 |
| 자본재 | 1,048.1 | 1,241.8 | 1,420.9 | 1,255.2 |
| - 광업용 | 847.8 | 1,009.8 | 1,204.3 | 1,015.8 |
| - 농업용 | 39.9 | 46.6 | 44.3 | 46.8 |

| | | | | |
|---------|---------|---------|---------|---------|
| - 운송용 | 160.3 | 185.4 | 172.2 | 192.7 |
| 건축자재 | 189.8 | 202.3 | 215.9 | 225.4 |
| 연료 및 오일 | 410.5 | 371.7 | 446.0 | 582.2 |
| 기타 | 1.5 | 1.7 | 0.9 | n/a |
| 총계 | 6,568.7 | 7,187.9 | 7,662.6 | 8,268.0 |

*정보원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관세청

6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코스타리카 수출입현황

< 최근 10년간 한국-코스타리카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 연도 | 한국수출 | 한국수입 | 무역수지 |
|-----------|---------|--------|--------|
| 1996 | 51,548 | 7,022 | 44,526 |
| 1997 | 64,688 | 14,564 | 50,124 |
| 1998 | 75,357 | 43,810 | 31,547 |
| 1999 | 107,220 | 49,784 | 57,436 |
| 2000 | 109,966 | 74,838 | 35,128 |
| 2001 | 111,461 | 33,760 | 77,701 |
| 2002 | 111,202 | 39,245 | 71,957 |
| 2003 | 80,695 | 66,482 | 14,213 |
| 2004 | 122,374 | 28,591 | 93,783 |
| 2005(1-3) | 45,350 | 6,831 | 38,519 |

< 한국의 대 코스타리카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천불) >

| 품목명 | 2002 | 2003 | 2004 | 2005(1-3)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증가율 |
| 총계 | 111,202 | 80,695 | 122,374 | 45,350 | 102 |
| 기구부품 | | | 20,005 | 10,718 | - |
| 자동차 | 53,486 | 32,700 | 41,845 | 8,992 | 9 |
| 유선통신기기 | | | 26 | 7,773 | - |
| 자동차부품 | 12,710 | 10,625 | 16,192 | 5,328 | 23 |
| 철강판 | 5,406 | 4,194 | 8,966 | 2,611 | 13 |
| 합성수지 | 2,492 | 4,137 | 4,339 | 2,263 | 64 |
| 고무제품 | 4,172 | 4,379 | 5,882 | 1,025 | 9 |
| 기타직물 | | | 90 | 723 | 1,188 |
| 건설광산기계 | 2,682 | 2,099 | 3,278 | 674 | (23) |
| 무선통신기기 | 695 | 2,466 | 686 | 522 | 210 |
| 건전지 및 축전지 | 1,932 | 2,427 | 2,185 | 440 | 30 |

< 한국의 대 코스타리카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 품목명 | 2002 | 2003 | 2004 | 2005(1-3)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증가율 |
| 총계 | 39,245 | 66,482 | 28,591 | 6,831 | 2 |
| 반도체 | 24,163 | 55,191 | 17,401 | 2,669 | (38) |
| 무선통신기기 | 191 | 330 | 2,167 | 1,588 | 1,477 |
| 컴퓨터 | 11,439 | 6,270 | 4,242 | 850 | (43) |
| 계측제어 분석기 | 24 | 972 | 938 | 717 | 303 |
| 기호식품 | 1,110 | 733 | 716 | 425 | 760 |
| 알루미늄 | | | 275 | 158 | 493 |

64.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 연도별 / 부문별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 : 백만불) >

| 연도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총 계 | 408.6 | 458.5 | 658.5 | 574.3 | 596.7 |
| 농업 | -11.2 | 1 | -8.6 | -35.3 | 14 |
| 식품가공 | 11.5 | 5.2 | 2.8 | 8.4 | 7.6 |
| 유통업 | 15.5 | 8.3 | 15.2 | 6 | 14.6 |
| 제조업 | 296.2 | 231.4 | 482.7 | 385.8 | 437 |
| 서비스업 | 17.3 | 57.4 | 52.8 | 83.2 | 37.2 |
| 금융업 | 27.1 | 41.3 | 16.3 | 1.3 | 19 |
| 관광업 | 51.3 | 111.5 | 76 | 88.3 | 51.4 |
| 부동산업 | 0 | 0 | 21 | 31 | 2 |
| 기타 | 0.9 | 2.4 | 0.3 | 5.6 | 13.9 |

< 연도별 / 국별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 : 백만불) >

| 국가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총미 | 19.4 | 26.4 | 27.7 | 27.2 | 9.4 |
| -엘살바도르 | 15.1 | 16.4 | 23.4 | 25.4 | 6 |
| -과테말라 | 2.4 | 4.6 | 1.8 | 0 | 0.1 |
| -온두라스 | 0 | 0 | 0 | 0 | 1.2 |
| -니카라과 | 1.8 | 5.5 | 2.5 | 1.8 | 2.1 |
| 기타 미주국가 | 334.4 | 397.4 | 387 | 442.2 | 531.8 |
| -캐나다 | -2.7 | 36 | -9.6 | 17.5 | 50.3 |
| -멕시코 | 29.3 | 30.7 | 29.6 | 38 | 28.3 |
| -미국 | 279.5 | 260.3 | 329.6 | 357.7 | 392.1 |
| -파나마 | 26.2 | 61.2 | 30.6 | -1.1 | 22.2 |
| -브라질 | -1.8 | -2.2 | 4.7 | 1.9 | 0.3 |

| | | | | | |
|------------|--------------|--------------|--------------|--------------|--------------|
| -콜롬비아 | 1 | 6.4 | 3.5 | -0.2 | 17.4 |
| -베네수엘라 | 0.5 | 1.5 | 1.9 | 17.2 | 9.7 |
| 유럽 | 48.9 | 37.6 | 243.8 | 102.6 | 49.1 |
| -독일 | 10.3 | 3.3 | 1.3 | 57.8 | 5.3 |
| -스페인 | 21.8 | 25.7 | 0.1 | 7.5 | 2.9 |
| -네덜란드 | 0 | 2.5 | 229.2 | 29.7 | 24.1 |
| -스위스 | 2.2 | -0.6 | 5 | 8.4 | 11 |
| 아시아 | 2.5 | -6.3 | 0.2 | 1.2 | 4.8 |
| -중국 | -0.2 | 0.2 | 0.8 | 0.5 | 0.2 |
| -한국 | -1.7 | -8.7 | -1.1 | -0.4 | 3.2 |
| -일본 | 0.8 | 1.3 | 0.8 | -0.7 | 0.3 |
| 총 계 | 408.6 | 458.5 | 658.4 | 574.2 | 596.8 |

65.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현황

<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투자현황 (단위 : 건, 천불)>

| | 2001년까지 | 2002 | 2003 | 2004 | 합계 |
|-------|---------|------|------|-------|--------|
| 순투자건수 | 11 | 1 | 1 | 1 | 14 |
| 순투자금액 | 14,571 | -110 | 271 | 5,800 | 20,532 |

* 정보원 : 한국수출입은행

* 코스타리카의 대한국 투자 : 없음.

66. 물가금융지표/코스타리카 물가금융 통계

< 코스타리카 물가 관련 통계 >

| | 2001 | 2002 | 2003 | 2004 |
|----------------|----------|----------|----------|----------|
| 소비자 물가지수(*) | 225.5 | 247.33 | 271.74 | 307.41 |
| 잠재 인플레이 지수(*) | 215.02 | 235.36 | 256.34 | 284.51 |
| 명목 최저임금 지수(**) | 1,465.64 | 1,567.66 | 1,715.52 | 1,909.37 |
| 실질 최저임금 지수(**) | 115.15 | 112.29 | 111.85 | 110.04 |

주 * : 1995년=100 / 주 ** : 1984년=100

< 코스타리카 금융통계 >

| | 2001 | 2002 | 2003 | 2004 |
|-----------------|------------|------------|------------|------------|
| 콜론화 평균 여신이자율(%) | 25.84 | 27.37 | 23.67 | 23.29 |
| 달러화 평균 여신이자율(%) | 10.63 | 9.69 | 9.76 | 9.12 |
| 콜론화 평균 수신이자율(%) | 13.29 | 13.75 | 11.6 | 11.53 |
| 달러화 평균 수신이자율(%) | 4.54 | 3.12 | 2.13 | 2.11 |
| 발권 통화량(백만콜론) | 223,034.90 | 249,870.20 | 275,367.10 | 277,736.20 |
| 지급준비율(%) | 28.75 | 31.25 | 26 | 26 |

67. 노동통계/코스타리카 노동관련 통계

<코스타리카 노동관련 통계 (단위 : 명, %) >

| | 2001 | 2002 | 2003 | 2004 |
|--------|-----------|-----------|-----------|-----------|
| 총인구 | 3,906,742 | 3,997,883 | 4,088,773 | 4,178,755 |
| 경제활동인구 | 1,653,321 | 1,695,018 | 1,757,578 | 1,768,759 |
| 고용인구 | 1,552,924 | 1,586,491 | 1,640,387 | 1,653,879 |
| 실업인구 | 100,397 | 108,527 | 117,191 | 114,880 |
| 실업률(%) | 6.1 | 6.4 | 6.7 | 6.5 |

* 정보원 코스타리카 통계청(INEC), 중앙은행

68.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通商部 (Ministry of Foreign Trade)

통상부는 외국인투자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출 및 투자진흥센터(Centre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nd Export: CENPRO)를 운영하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결정이나 투자 허가의 행정적 업무에 서부터 투자관련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코스타리카 개발추진 연합회(CINDE)

동 기관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코스타리카의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방문자에게 협조하고 있음. .

- 특정제조시설, 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방문
- 동국내 공급업자와 준계약자 및 합작투자 파트너의 알선
- 현지 금융조달 알선
- 변호사, 자문 및 관련업무 지원
- 각종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그밖의 투자고려시 부수되는 각종 정보 제공

기타

이 밖의 투자유관기관으로는 각 지역에 설치된 상업회의소와 공업회의소,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스타리카 수출업자회의(Chamber for Costa Rican Exporters)와 투자 및 사업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스타리카-미 상업회의소(Costa Ric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등이 있음.

해외투자유치기관

| | | | |
|----------|-----------------------------------------------|-----|--|
| 기관명 | Costa Rican Investment Board (CINDE) | | |
| 주 소 | 7170-1000, San Jose', Costa Rica | | |
| 전 화 | 506-220-0036 | 팩 스 | |
| Web-site | www.cinde.or.cr | | |
| E-mail | invest@cinde.or.cr | | |
| 기관개요 | 코스타리카 투자 무역개발 위원회-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비영 리 민간기구 | | |
| Abstract | | | |